2023. 2.

국회예산정책처 I 경제 동향 I 제35호

NABO 경제 동향

NABO Economic Trends

CONTENTS

경제 동향

경제 현안 | 2022년 수출입 특징 및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본 원고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nabo Economic Trends
경제동향

2023년 2월호 통권 제35호

Contents

Ⅰ 지출
1. 소비 06
2. 투자 08
3. 대외거래 13
4. 소비자물가 16

Ⅱ 생산·고용·인구
1. 생산 19
2. 고용 30
3. 인구 35

Ⅲ 금융·자산·재정
1. 금융시장 39
2. 에너지 및 원자재 43
3. 부동산 50
4. 재정 52

Ⅳ 해외경제 동향
1. 미국 56
2. 중국 59
3. 유로지역 61
4. 일본 63

Ⅴ 경제 현안
2022년 수출입 특징 및 평가 65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종합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과 투자, 수출 감소 폭이 확대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비관적 소비심리도 이어져 경기 하방 우려가 확대되고 있으나, 금융시장은 안정세를 나타냄

내수는 투자를 중심으로 부진

- 12월 소매판매는 준내구재 판매 증가 등으로 4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되었으나, 투자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모두 전월대비 감소

무역수지는 1월까지 11개월 연속 적자가 이어진 가운데 적자폭이 확대

- 최근 수출은 4개월 연속 역성장하였는데, 중국, 아세안, 일본 등으로의 수출 감소폭이 확대
- 1월 무역수지는 126.9억달러(2022년 누적 472억달러) 적자
  - 12월 경상수지는 26.8억달러 흑자이나 흑자규모는 전년동월대비 축소

소비자물가는 상승세 지속

- 1월 상품과 서비스 물가는 각각 6.6%와 3.8% 상승

전산업 생산은 감소세가 확대되는 모습

- 제조업 생산은 12월 기준으로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감소
  - 가전(-30.4%), 철강(-17.6%), 화학(-16.0%), 반도체(-15.8%) 등의 감소세가 크며, 자동차(12.1%), 일반기계(9.6%), 조선(9.1%)의 생산은 증가
-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로는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 감소

고용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나 증가세가 둔화

- 취업자수는 1월에 41.1만명 증가하였으나(2022년 연간 81.6만명), 증가세는 8개월 연속 둔화
- 인구는 37개월째 감소하여 1월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전년동월대비 0.39% 감소

금융시장은 글로벌 물가 불안이 완화되면서 국고채금리와 환율 하락

- 1월말 기준 3년만기 국고채 금리는 3.3%로 전월대비 0.4%p 하락했으며,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 긴축기조 완화 기대 등으로 주요국의 국채금리도 전반적 하락
- 1월말 원달러 환율은 1,229원/달러로 전월대비 3.0% 하락

주요 거시경제 지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업종별	2021			2022						2023
	연간	3Q	4Q	연간	2Q	3Q	4Q	11월	12월	1월
전산업생산	4.9	3.9 (0.9)	5.7 (1.5)	3.3	4.5 (0.9)	4.0 (0.4)	1.0 (−2.1)	1.2 (0.4)	−0.8 (−1.6)	–
광공업생산	7.4	5.8 (1.0)	6.4 (1.1)	1.4	4.1 (−1.6)	1.2 (−1.5)	−4.1 (−5.7)	−3.4 (0.6)	−7.3 (−2.9)	–
서비스업생산	4.4	3.9 (1.1)	5.5 (1.5)	4.8	5.5 (2.8)	6.0 (1.5)	3.9 (−0.8)	3.1 (−0.3)	3.7 (−0.2)	–
소매판매액	5.9	5.6 (0.8)	6.4 (1.1)	0.2	−0.2 (−1.1)	−0.2 (1.2)	−1.8 (−0.8)	−2.1 (−1.7)	−2.5 (1.4)	–
설비투자지수	9.6	6.2 (−0.8)	6.2 (−02.)	3.3	−2.4 (−1.2)	7.5 (9.8)	9.6 (−0.1)	10.7 (0.7)	3.2 (−7.1)	–
건설기성액	−6.7	−8.1 (−1.1)	−2.9 (4.1)	2.5	2.1 (1.4)	3.9 (0.4)	5.1 (5.1)	12.1 (2.6)	−3.1 (−10.9)	–
수출(통관)	25.7	26.5	24.5	6.1	13.0	5.8	−9.9	−14.1	−9.6	−16.6
수입(통관)	31.5	37.5	39.4	18.9	23.0	22.6	3.1	2.6	−2.5	−2.6
경상수지(억달러)	883	256.5	208.9	298.3	99.9	8.8	40.8	−2.2	26.8	–
실업률	3.7	2.8	2.9	2.9	3.0	2.5	2.6	2.3	3.0	3.6
취업자수 증감(천명)	369	577	660	816	880	780	604	626	509	411
소비자물가	2.5	2.5	3.5	5.1	5.4	5.9	5.3	5.0	5.0	5.2
원/달러환율	1,144	1,185	1,186	1,292	1,293	1,435	1,267	1,332	1,267	1,229
국고채금리(3년)	1.39	1.59	1.80	3.20	3.55	4.19	3.72	3.69	3.72	3.33

주: 1. (　)안은 전기대비 증가율
　2. 국고채수익률, 원달러 환율은 연간은 연평균, 분기(월)는 분기(월)말 기준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산업통상자원부

https://datalink.nabo.go.kr/2950922X20231/1

지 출

12월 소매판매는 준내구재 판매 증가에 힘입어 4개월 만에 증가 전환

- 소매판매(전월대비, %): ('22.10월)-0.2 → (11월)-1.7 → (12월)1.4
- 내 구 재(전월대비, %): ('22.10월)-3.9 → (11월)-1.4 → (12월)-2.7
- 준내구재(전월대비, %): ('22.10월)-2.9 → (11월)-5.8 → (12월)11.1
- 비내구재(전월대비, %): ('22.10월)3.0 → (11월)-0.4 → (12월)0.1

12월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와 기계류에서 모두 하락하면서 전월대비 감소

- 설비투자(전월대비, %): ('22.10월)0.4 → (11월)0.7 → (12월)-7.1

12월 건설투자(건설기성)는 건축과 토목 공사 실적이 모두 줄어 감소

- 건설기성액(전월대비, %): ('22.10월)5.1 → (11월)2.7 → (12월)-9.5
- 건축기성액(전월대비, %): ('22.10월)5.5 → (11월)2.6 → (12월)-10.9
- 토목기성액(전월대비, %): ('22.10월)3.7 → (11월)3.1 → (12월)-5.1

1월 무역수지는 11개월 연속 적자가 이어진 가운데 적자폭 확대

- 수출(전년동월대비, %): ('22.11월)-14.1 → (12월)-9.6 → ('23.1월)-16.6
- 수입(전년동월대비, %): ('22.11월)2.6 → (12월)-2.5 → ('23.1월)-2.6
- 무역수지(억달러): ('22.11월)-70.4 → (12월)-46.9 → ('23.1월)-126.9

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상승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11월)5.0 → (12월)5.0 → ('23.1월)5.2
- 상품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11월)6.1 → (12월)6.2 → ('23.1월)6.6
- 서비스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11월)4.1 → (12월)4.0 → ('23.1월)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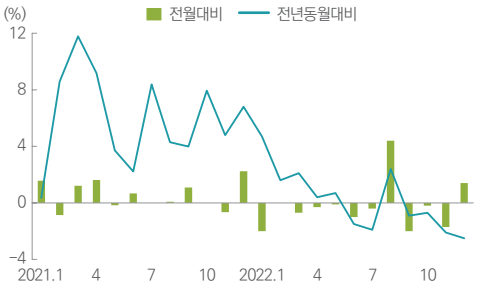
1 소비

12월 「소매판매」는 4개월 만에 증가 전환

■ **소매판매는 준내구재 판매 증가에 힘입어 전월대비 1.4%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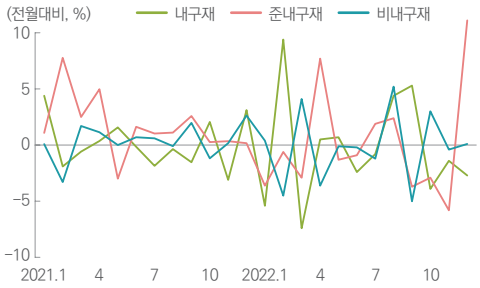
- 소매판매(전월대비, %): ('22.10월)-0.2 → (11월)-1.7 → (12월)1.4
- 승용차 제외 소매판매(전월대비, %): ('22.10월)0.9 → (11월)-2.5 → (12월)1.8

[그림 1] 소매판매지수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그림 2] 내구연한별 소매판매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 **내구재는 통신기기·컴퓨터, 가전제품, 승용차, 가구 판매가 줄어 전월대비 2.7% 감소**

- 이자율 상승, 공급망 차질 등으로 통신기기·컴퓨터 판매가 감소
- 내구재(전월대비, %): ('22.10월)-3.9 → (11월)-1.4 → (12월)-2.7
- 통신기기·컴퓨터(전월대비, %): ('22.10월)6.6 → (11월)-6.9 → (12월)-7.9

■ **준내구재는 의복, 신발·가방, 오락·취미·경기용품 판매가 늘어 전월대비 11.1% 증가**

- 평년대비 추운 날씨로 의복(전월대비 15.0%) 판매가 큰 폭으로 반등
- 준내구재(전월대비, %): ('22.10월)-2.9 → (11월)-5.8 → (12월)11.1
- 의복(전월대비, %): ('22.10월)-2.6 → (11월)-8.8 → (12월)15.0

■ **비내구재는 음식료품 판매가 줄었으나, 화장품, 의약품, 차량연료, 서적·문구 등 판매가 늘어 전월대비 0.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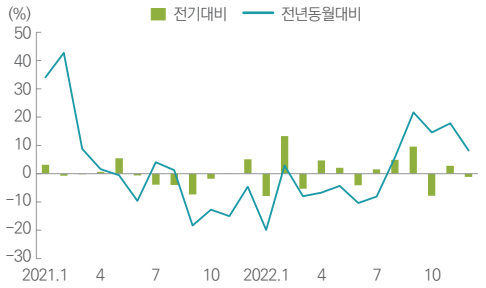
- 비내구재(전월대비, %): ('22.10월)3.0 → (11월)-0.4 → (12월)0.1

■ **소매업태별로는 전문소매점(4.2%)[1], 백화점(6.9%), 면세점(5.7%), 무점포소매(0.1%)[2]에서 전월대비 판매가 확대**

1) 의복, 통신기기, 가전제품, 의약품 등 특정 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소매점
2) 매장없이 인터넷, 홈쇼핑, 배달, 방문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소매점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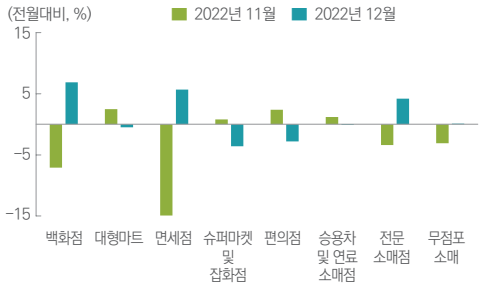
• 슈퍼마켓 및 잡화점(-3.6%), 편의점(-2.8%), 대형마트(-0.5%),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0.1%)에서는 전월대비 판매가 감소

[그림 3] 승용차 판매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그림 4] 업태별 소매판매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8개월 연속 기준선(100)을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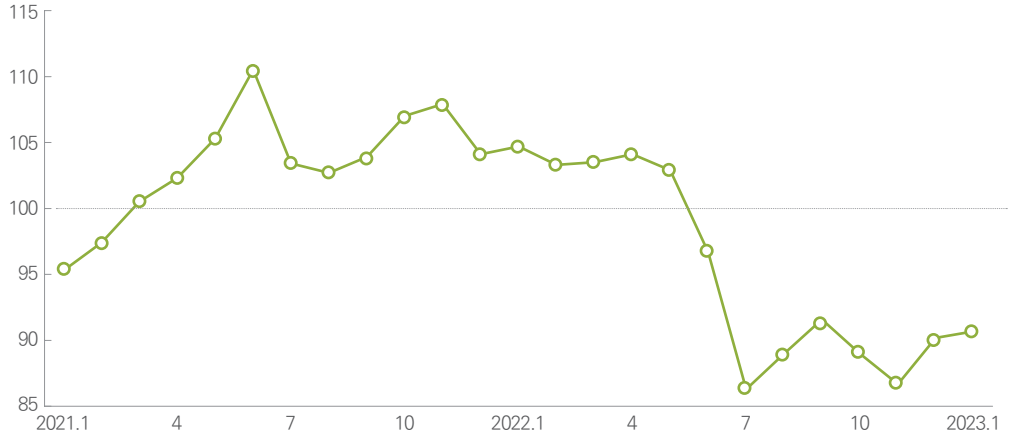
■ **부동산 규제완화 및 물가상승률 둔화 기대가 반영되어 전월보다 0.5p 높은 90.7을 기록하였으나 여전히 비관적인 시각이 우세**

• 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항목 중 가계수입전망(96, +1p)과 소비지출전망(110, +2p) 지수가 개선된 반면, 현재생활형편(82, -1p)과 향후경기전망(60, -2p) 지수는 악화

• 생활형편전망(85)과 현재경기판단(51) 지수는 지난 달 수준을 유지

• 소비자심리지수: ('22.10월)89.0 → (11월)86.7 → (12월)90.2 → ('23.1월)90.7

[그림 5]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주: 장기평균치(2003년 1월~2022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2 투자

가. 설비투자

12월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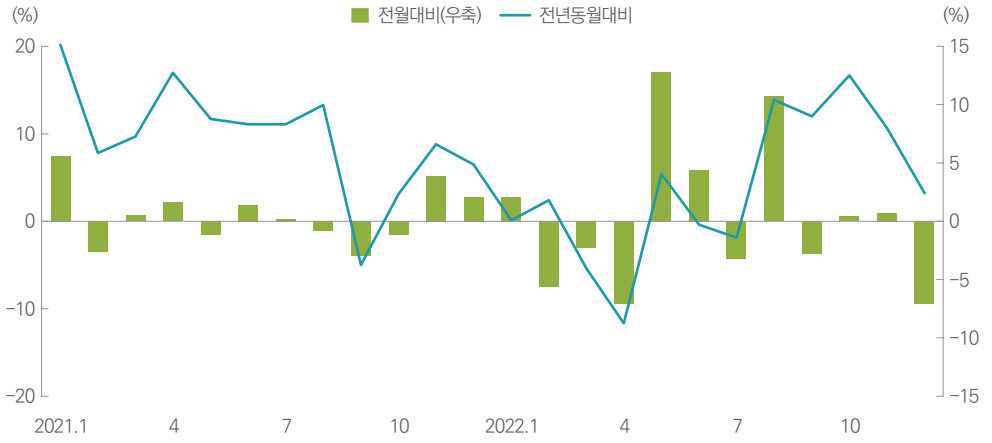
■ **설비투자는 기계류(-7.8%)와 운송장비(-4.8%)에서 모두 하락하면서 전월대비 7.1% 감소**

- 설비투자(전월대비, %): ('22.10월)0.4 → (11월)0.7 → (12월)-7.1
- 기계류(전월대비, %): ('22.10월)2.5 → (11월)2.9 → (12월)-7.8
- 운송장비(전월대비, %): ('22.10월)-5.1 → (11월)-5.8 → (12월)-4.8

■ **전년동월대비로는 기계류(3.7%)와 운송장비(1.7%)에서 늘어나면서 3.2% 증가**

- 설비투자(전년동월대비, %): ('22.10월)16.7 → (11월)10.7 → (12월)3.2
- 기계류(전년동월대비, %): ('22.10월)13.2 → (11월)9.9 → (12월)3.7
- 운송장비(전년동월대비, %): ('22.10월)27.2 → (11월)13.0 → (12월)1.7

[그림 6] 설비투자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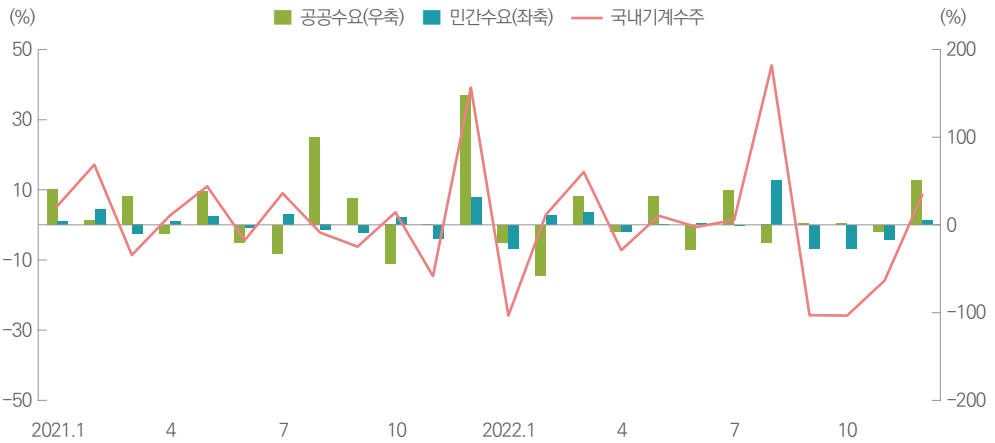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12월 중 주요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와 「기계류 내수출하」 감소, 「기계류 수입액」 증가

■ **국내기계수주는 공공부문(-73.3%)과 민간부문(-18.3%)에서 모두 감소하면서 전월대비 23.0% 감소**

- 국내기계수주(전월대비, %): ('22.10월)-15.9 → (11월)8.6 → (12월)-23.0
- 공공부문(전월대비, %): ('22.10월)-7.3 → (11월)50.3 → (12월)-73.3
- 민간부문(전월대비, %): ('22.10월)-16.4 → (11월)5.8 → (12월)-18.3

[그림 7] 국내기계수주 전월대비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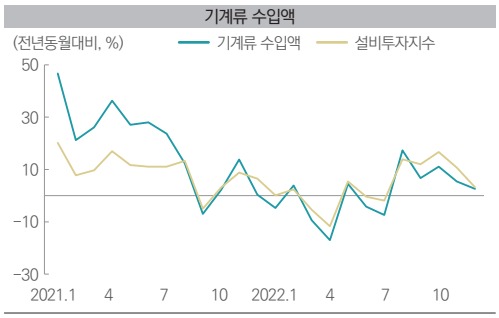
■ **기계류 내수출하는 전월대비 1.3% 감소**

- 기계류 내수출하(전월대비, %): ('22.10월)3.3 → (11월)-1.1 → (12월)-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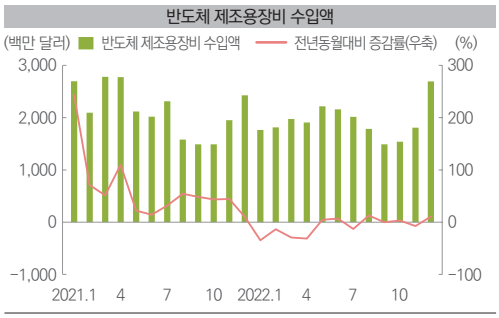
■ **기계류 수입액은 반도체 제조용장비(10.9%), 자동차 부품(12.6%) 등에서 늘어나면서 전년동월대비 2.6% 증가**

- 기계류 수입액(전년동월대비, %): ('22.10월)11.1 → (11월)5.4 → (12월)2.6

[그림 8] 기계류 수입액 및 반도체 제조용장비 수입액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무역협회



자료: 무역협회

나. 건설투자

12월 「건설기성(불변)」은 건축과 토목 공사가 모두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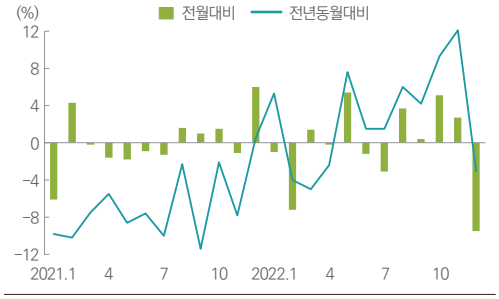
■ **건설기성은 건축(−10.9%)과 토목(−5.1%)이 모두 줄어 전월대비 9.5% 감소**

- 주택거래가 감소하여 주거용을 중심으로 건축기성이 큰 폭으로 감소
- 건설기성액(전월대비, %): ('22.10월)5.1 → (11월)2.7 → (12월)-9.5
- 건축기성액(전월대비, %): ('22.10월)5.5 → (11월)2.6 → (12월)-10.9
- 토목기성액(전월대비, %): ('22.10월)3.7 → (11월)3.1 → (12월)-5.1

■ **전년동월대비로도 건축(−2.4%)과 토목(−4.6%) 공사실적이 모두 감소하여 3.1% 감소**

- 건설기성액(전년동월대비, %): ('22.10월)9.3 → (11월)12.1 → (12월)-3.1

[그림 9] 건설기성(불변) 추이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그림 10] 공종별 건설기성(불변)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12월 「건설기성(경상)」은 건축과 토목 공사의 전년동월대비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

■ **건축부문(경상)은 주거용 건축(1.5%)과 비주거용 건축(6.2%) 공사 실적이 모두 늘어 전년동월대비 3.2% 상승**

- 건축(경상, 전년동월대비, %): ('22.10월)20.2 → (11월)17.7 → (12월)3.2
- 주거용(경상, 전년동월대비, %): ('22.10월)12.7 → (11월)13.0 → (12월)1.5
- 비주거용(경상, 전년동월대비, %): ('22.10월)34.6 → (11월)26.1 → (12월)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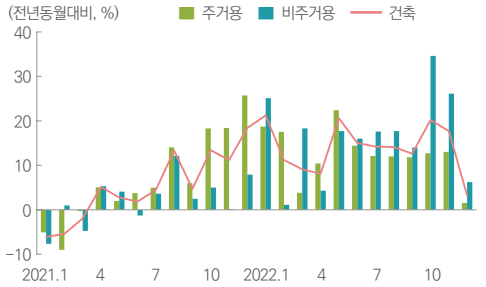
■ **토목부문(경상)은 플랜트(9.0%)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9% 증가**

- 토목(경상, 전년동월대비,%): ('22.10월)5.9 → (11월)25.3 → (12월)1.9
- 일반토목(경상, 전년동월대비,%): ('22.10월)9.8 → (11월)16.7 → (12월)2.2
- 전기기계(경상, 전년동월대비,%): ('22.10월)-50.1 → (11월)-6.5 → (12월)-26.6
- 플랜트(경상, 전년동월대비,%): ('22.10월)24.4 → (11월)48.7 → (12월)9.0

■ **발주자별 건설기성액(경상)을 살펴보면 공공기관(-1.7%)이 감소한 반면, 민간기관(5.4%)의 공사실적이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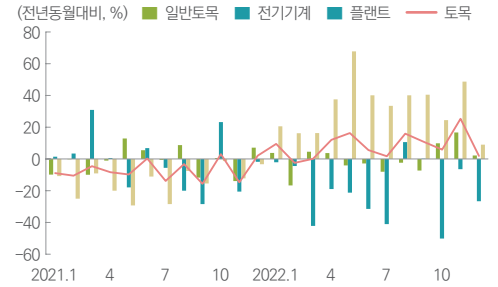
- 공공기관(경상, 전년동월대비, %): ('22.10월)8.3 → (11월)13.6 → (12월)-1.7
- 민간기관(경상, 전년동월대비, %): ('22.10월)19.4 → (11월)21.4 → (12월)5.4

[그림 11] 공종별 건축기성(경상) 추이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그림 12] 공종별 토목기성(경상) 추이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12월 「건설수주(경상)」는 사무실 및 점포와 주택 등 건축을 중심으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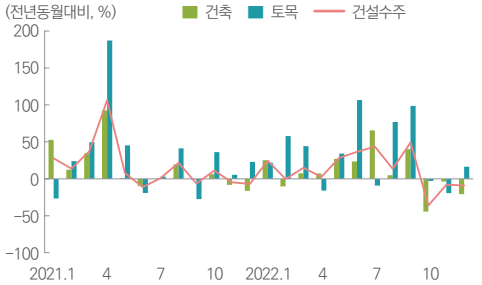
■ 건설수주(경상)는 전년동월대비 9.0% 줄며 3개월 연속 감소

- 건축 수주는 사무실·점포(-53.3%), 주택(-12.6%) 등의 수주가 줄면서 전년동월대비 20.7% 감소
- 토목 수주는 발전·통신(174.6%)의 수주가 크게 늘면서 전년동월대비 16.3% 증가
- 건설수주(전년동월대비, %): ('22.10월)-36.1 → (11월)-8.1 → (12월)-9.0

■ 발주처별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수주가 모두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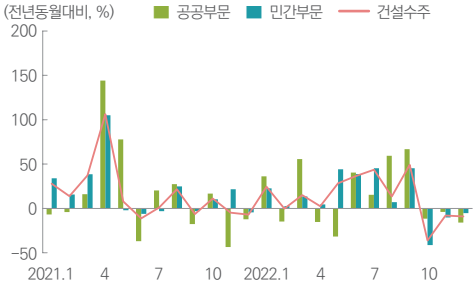
- 공공부문 수주는 전년동월대비 16.0%, 민간부문 수주는 전년동월대비 5.3% 감소
- 업종별로 제조업(105.4%)의 수주가 늘었으나 비제조업(-27.2%)의 수주가 감소

[그림 13] 공종별 수주(경상) 추이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그림 14] 발주자별 수주(경상) 추이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3 대외거래

가. 수출입 및 무역수지

1월 「무역수지」는 11개월 연속 적자가 이어진 가운데 적자폭 확대

■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6.6% 감소한 462.7억달러로 4개월 연속 감소**

- 수출(전년동월대비, %): ('22.11월)-14.1 → (12월)-9.6 → ('23.1월)-16.6
- 일평균수출액(억달러): ('22.11월)21.6 → (12월)22.4 → ('23.1월)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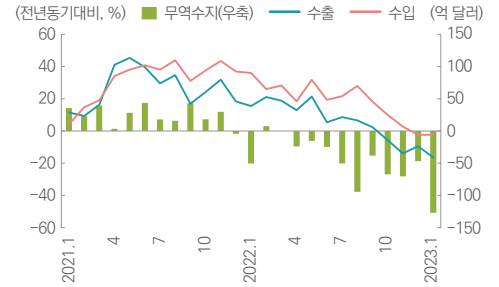
■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2.6% 감소한 589.6억달러로 2개월 연속 감소**

- 수입(전년동월대비, %): ('22.11월)2.6 → (12월)-2.5 → ('23.1월)-2.6

■ **무역수지는 126.9억달러 적자로 11개월 연속으로 적자가 이어진 가운데, 전월(-46.9억달러)에 비해 적자폭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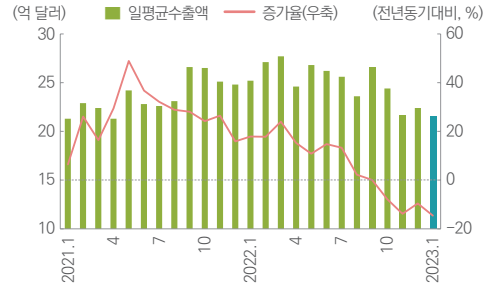
- 무역수지(억달러): ('22.11월)-70.4 → (12월)-46.9 → ('23.1월)-126.9

[그림 15]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 동향」

[그림 16] 일평균 수출액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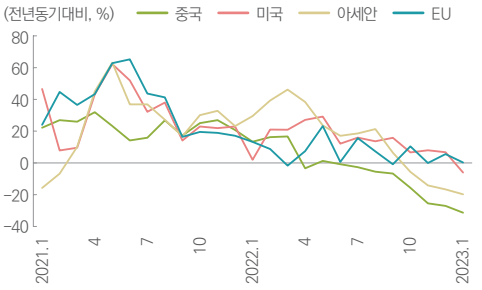
지역별로는 중국, 아세안 등으로의 수출 감소폭이 확대

■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면서 중국, 아세안, 일본 등으로의 수출이 크게 감소**

- 대중국 수출(전년동월대비, %): ('22.11월)-25.5 → (12월)-27.1 → ('23.1월)-31.4
- 대미국 수출(전년동월대비, %): ('22.11월)7.9 → (12월)6.7 → ('23.1월)-6.1
- 대아세안 수출(전년동월대비, %): ('22.11월)-14.2 → (12월)-16.7 → ('23.1월)-19.8
- 대EU 수출(전년동월대비, %): ('22.11월)-0.1 → (12월)5.5 → ('23.1월)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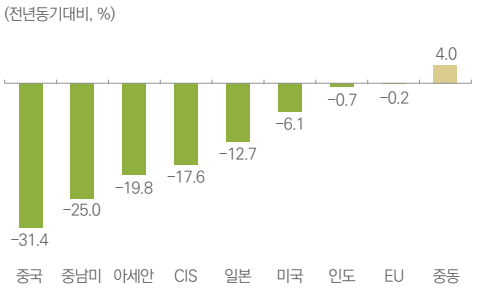
- 대일본 수출(전년동월대비, %): ('22.11월)-17.8 → (12월)-10.3 → ('23.1월)-12.7
- 대중남미 수출(전년동월대비, %): ('22.11월)-19.2 → (12월)-1.8 → ('23.1월)-25.0

[그림 17] 지역별 수출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 동향」

[그림 18] 1월 중 지역별 수출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 동향」

나. 경상수지

12월 「경상수지」는 26.8억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흑자규모는 전년동월대비 축소

■ **경상수지는 26.8억달러로 전년동월 63.7억달러에 비해 흑자규모가 축소**

- 경상수지(억달러): ('22.10월)16.3 → (11월)-2.2 → (12월)26.8

■ **상품수지는 -4.8억달러로 3개월 연속 적자 지속**

- 상품수지(억달러): ('22.10월)-9.5 → (11월)-10.0 → (12월)-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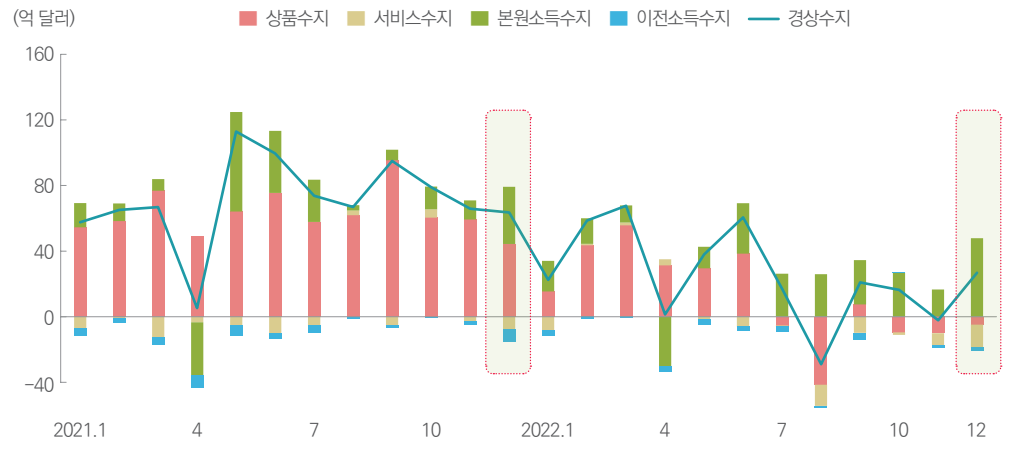
■ **서비스수지는 운송수지 흑자폭 축소와 여행수지 적자폭 확대 등으로 전년동월 -7.6억달러에서 -13.9억달러로 적자규모 확대**

- 서비스수지(억달러): ('22.10월)-1.5 → (11월)-7.4 → (12월)-13.9
- 운송수지(억달러): ('22.10월)10.4 → (11월)1.5 → (12월)1.7
- 여행수지(억달러): ('22.10월)-4.7 → (11월)-7.7 → (12월)-11.4

■ **본원소득수지는 47.9억달러로 배당지급 증가하면서 전년동월 34.9억달러에 비해 흑자규모 확대**

- 본원소득수지(억달러): ('22.10월)26.8 → (11월)16.6 → (12월)47.9

[그림 19] 항목별 경상수지



자료: 한국은행, 「국제수지」

4 소비자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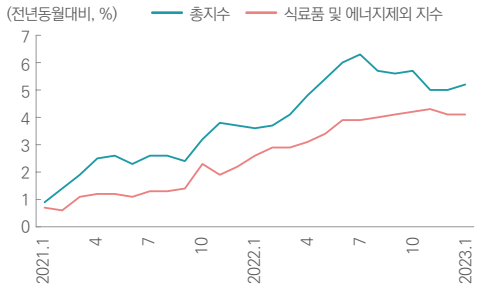
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상승

■ **소비자물가는 상품(6.6%), 서비스(3.8%) 등 주요 품목에서 모두 상승하며 전년동월대비 5.2% 상승**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11월)5.0 → (12월)5.0 → ('23.1월)5.2
- 근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22.11월)4.3 → (12월)4.1 → ('23.1월)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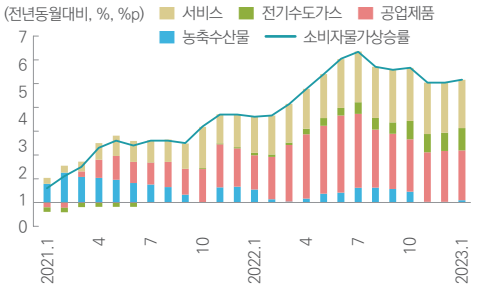
※ 근원물가: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상승률

[그림 20]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추이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그림 21] 주요 품목별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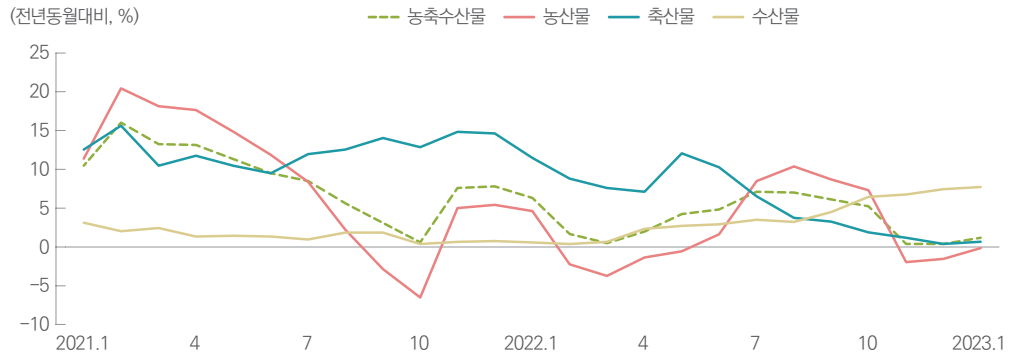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 **농축수산물 물가는 축산물(0.6%), 수산물(7.8%) 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1.1% 상승**

- 농축수산물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11월)0.3 → (12월)0.3 → ('23.1월)1.1
- 농산물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11월)-2.0 → (12월)-1.6 → ('23.1월)-0.2
- 축산물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11월)1.1 → (12월)0.3 → ('23.1월)0.6
- 수산물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11월)6.8 → (12월)7.5 → ('23.1월)7.8

[그림 22] 농축수산물 품목별 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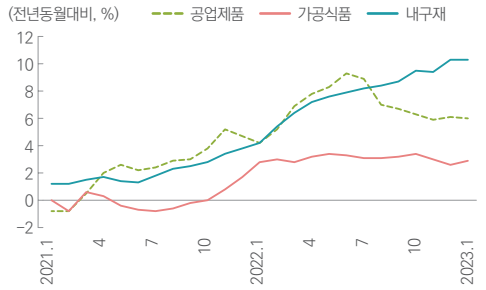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 **공업제품 물가는 가공식품(10.3%)에서 크게 상승하였으나 국제유가 상승세 둔화로 석유류(4.8%) 가격의 상승폭이 축소되며 6.0%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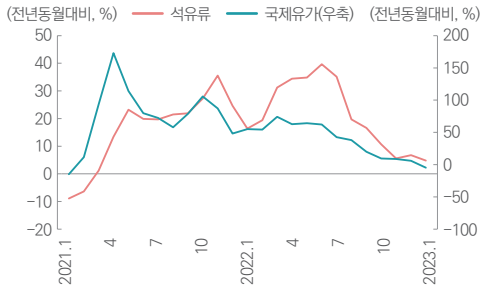
- 공업제품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11월)5.9 → (12월)6.1 → ('23.1월)6.0
- 가공식품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11월)9.4 → (12월)10.3 → ('23.1월)10.3
- 석유류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11월)5.6 → (12월)6.8 → ('23.1월)4.8
- 국제유가(3개유종평균, 달러/배럴): ('22.11월)87.4 → (12월)78.1 → ('23.1월)80.4

[그림 23] 공업제품 품목별 상승률 추이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그림 24] 석유류제품 가격과 국제유가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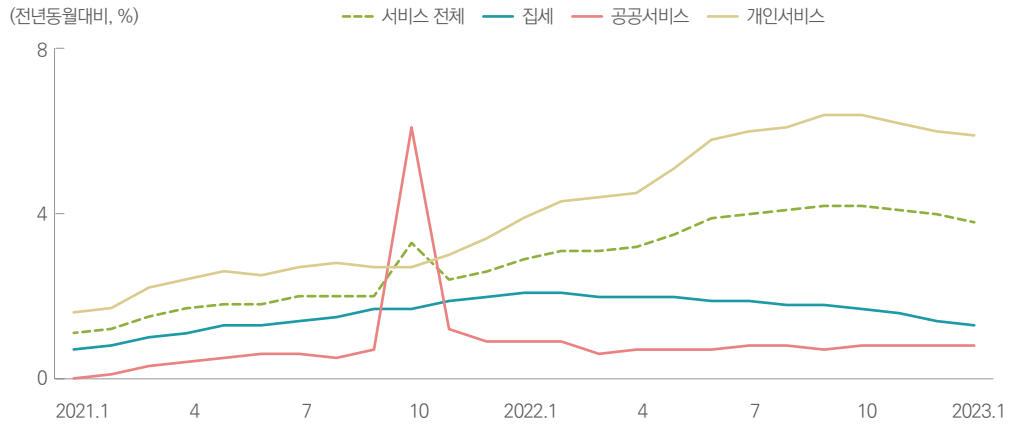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Bloomberg

■ **서비스 물가의 경우 외식 등 개인서비스 물가의 상승세가 지속되며 3.8% 상승**

- 서비스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11월)4.1 → (12월)4.0 → ('23.1월)3.8
- 집세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11월)1.6 → (12월)1.4 → ('23.1월)1.3
- 공공서비스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11월)0.8 → (12월)0.8 → ('23.1월)0.8
- 개인서비스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11월)6.2 → (12월)6.0 → ('23.1월)5.9

[그림 25] 서비스 물가 추이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생산·고용·인구

12월 「생산」은 제조업은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은 증가

■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0.8%, 전월대비로는 1.6% 각각 감소**
- 전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2.10월)2.8 → (11월)1.2 → (12월)-0.8
-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 ('22.10월)-1.5 → (11월)0.4 → (12월)-1.6

■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 일반기계, 조선 등의 생산은 늘었으나 반도체, 철강, 화학, 가전 등이 줄어 8.0% 감소**
- 제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2.10월)-1.1 → (1월)-3.3 → (12월)-8.0

■ **「서비스업 생산」은 부동산 등은 감소하였으나, 숙박·음식점, 금융·보험, 예술·스포츠·여가, 도소매 등이 늘어 3.7% 증가하며 증가세 지속**
- 서비스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2.10월)4.9 → (11월)3.1 → (12월)3.7

1월 주요 11대 산업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모두 감소

■ **조선, 무선통신기기, 석유, 자동차의 수출만 증가하고 다른 산업은 모두 줄어 전년동월대비 19.2% 감소**
- 11대 산업 수출(전년동월대비, %): ('22.10월)-9.2 → (11월)-16.4 → (12월)-11.3 → ('23.1월)-19.2%
- 11대 산업 수출(전월대비, %): ('22.10월)-8.9→(11월)0.3 → (12월)4.4→ ('23.1월)-16.4

■ **품목별로는 자동차(9.1%), 석유(12.2%)는 증가하였으나, 반도체(-44.5%), 화학(-25.0%) 등은 감소**

12월 「경기종합지수」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모두 큰 폭 하락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전월대비, p):('22.10월)0.0 → (11월)-0.6 → (12월)-0.9
-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전월대비, p):('22.10월)-0.1 → (11월)-0.2 → (12월)-0.5

1월 「고용」은 취업자 수의 양호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증가세는 둔화

■ **1월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41.1만명 증가하여 증가세가 8개월 연속 둔화되었고,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3개월 연속 감소**
-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2.11월)62.6 → (12월)50.9 → ('23.1월)41.1
- 취업자 수 증감(계절조정, 전월대비, 만명): ('22.11월)-1.1 → (12월)-4.0 → ('23.1월)-2.7

■ **서비스업에서 큰 폭의 취업자 수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제조업 취업자 수는 15개월만에 감소 전환하였고, 청년층과 40대의 취업자 수는 감소세 지속**

1월 「주민등록인구」는 인구감소 추세를 지속하면서 전년동월대비 20만 2천명(-0.39%) 감소

■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는 37개월째 마이너스를 지속**

■ **「혼인건수」와 「조혼인률」은 전년동월대비 소폭 증가**

1 생산

가. 산업별 생산 및 수출 주요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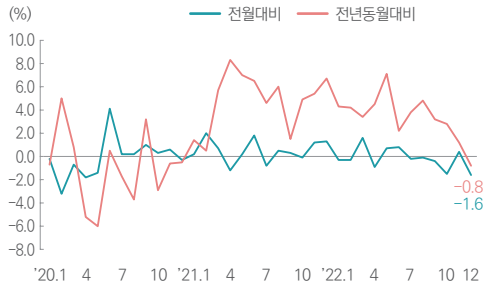
12월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모두 감소

■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서비스업을 제외한 다른 산업 부문에서 모두 줄어들어 '21.1월 이후 24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되며 0.8% 감소하였고, 전월대비로도 생산이 줄어 1.6% 감소**

- 전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2.10월)2.8 → (11월)1.2 → (12월)-0.8
-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 ('22.10월)-1.5 → (11월)0.4 → (12월)-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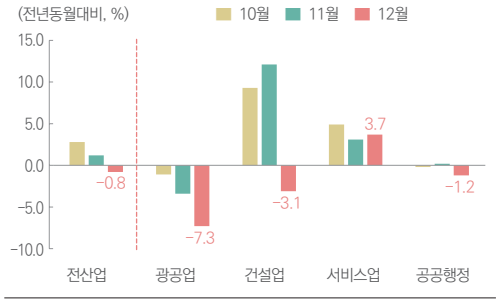
■ **산업 부문별로는 전년동월대비 서비스업(3.7%)은 증가하였으나 광공업(-7.3%), 건설업(-3.1%), 공공행정(-1.2%)은 감소하였고, 전월대비로는 건설업(3.8%)만 증가하였고 광공업(-2.9%), 건설업(-9.5%), 서비스업(-0.2%), 공공행정(-1.1%)은 감소**

[그림 1] 전산업생산 월별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2] 부문별 생산 추이



자료: 통계청

12월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모두 감소

■ **전년동월대비 자동차(12.1%), 일반기계(9.6%), 조선(9.1%)의 생산은 늘었으나, 가전(-30.4%), 컴퓨터·주변장치(-18.7%), 철강(-17.6%), 화학(-16.0%), 반도체(-15.8%), 섬유(-15.6%) 등은 줄어 8.0% 감소**

- 제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2.10월)-1.1 → (11월)-3.3 → (12월)-8.0

■ **전월대비로는 반도체(4.9%), 철강(5.8%), 가전(2.5%)의 생산은 늘었으나, 컴퓨터·주변장치(-28.3%), 무선통신기기(-11.9%), 자동차(-9.5%), 조선(-7.1%), 섬유(-6.3%) 등의 생산이 줄어 3.5% 감소**

- 제조업 생산(전월대비, %): ('22.10월)-3.4 → (11월)0.8 → (12월)-3.5

[표 1] 제조업 생산 동향

(단위: 2015=100,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2021			2022			
	10월	11월	12월	10월	11월*	12월*	전월대비
제조업(원지수)	115.5	119.8	126.4	114.2	115.8	116.3	-3.5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5.2	7.0	7.4	-1.1	-3.3	-8.0	
반도체	37.8	33.9	29.7	-2.1	-14.9	-15.8	4.9
자동차	-14.2	-5.1	7.7	22.7	23.6	12.1	-9.5
화학	2.3	7.7	4.9	-13.0	-13.5	-16.0	-1.2
일반기계	8.1	6.7	8.0	5.9	9.6	1.7	-3.4
철강	2.3	3.0	-0.6	-24.7	-23.8	-17.6	5.8
석유	7.7	7.6	7.7	2.0	2.7	-0.9	-3.1

주: *표는 잠정치
자료: 통계청

12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감소

- **전년동월대비 부동산(-10.9%),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3%) 등은 감소하였으나, 숙박·음식점(16.4%), 금융·보험(11.3%), 예술·스포츠·여가(13.6%), 도소매(0.9%) 등이 늘어 3.7% 증가하며 증가세 지속**
  - 서비스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2.10월)4.9 → (11월)3.1 → (12월)3.7
- **전월대비로는 금융·보험(2.3%), 예술·스포츠·여가(2.1%), 보건·사회복지(0.9%), 교육(0.2%) 등은 늘었으나, 부동산업(-5.3%), 운수·창고(-3.7%), 숙박·음식점(-3.0%), 정보통신업(-1.9%) 등이 줄어 0.2% 감소**
  - 서비스업 생산(전월대비, %): ('22.10월)-1.0 → (11월)-0.3 → (12월)-0.2

[표 2] 서비스업 생산 동향

(단위: 2015=100, 전년동월대비 %)

업종별	2021			2022			
	10월	11월	12월	10월	11월*	12월*	전월대비
서비스업(원지수)	111.8	114.7	123.2	117.3	118.2	127.7	-0.2
서비스업	5.1	5.4	5.8	4.9	3.1	3.7	
도매 및 소매	4.3	4.1	4.2	2.8	0.5	0.9	0.0
숙박 및 음식점	7.4	14.4	38.4	16.9	6.8	16.4	-3.0
금융 및 보험	7.0	4.7	0.2	6.6	7.7	11.3	2.3

주: *표는 잠정치
자료: 통계청

1월 주요 11대 산업[3]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모두 감소

■ **조선(86.3%), 무선통신기기(17.9%), 석유(12.2%), 자동차(9.1%)의 수출만 증가하고 다른 산업은 모두 줄어 전년동월대비 19.2% 감소**

- 11대산업 수출(전년동월대비, %): ('22.10월)-9.2 → (11월)-16.4 → (12월)-11.3 → ('23.1월)-19.2
- '22년 1월 수출이 역대 1월 중 최대실적을 달성했던 기저효과와 더불어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반도체를 포함한 대다수 주요 품목의 수출이 줄어들며 11대 산업의 수출도 감소

■ **전월대비로는 화학(4.4%), 무선통신기기(32.0%), 가전(2.4%) 등의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조선(-42.6%), 반도체(-33.7%), 컴퓨터·주변장치(-26.0%), 일반기계(-15.6%), 석유(-12.5%), 자동차(-9.5%), 철강(-4.6%) 등의 수출이 줄어 14.9% 감소**

- 11대 산업 수출(전월대비, %): ('22.10월)-8.9 → (11월)0.3 → (12월)4.4 → ('23.1월)-16.4

[표 3] 산업별 수출 동향

(단위: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2021			2022					2023	
	10월	11월	12월	1월	10월	11월	12월*	전월대비	1월*	전월대비
11대 산업	29.4	39.7	20.8	16.2	-9.2	-16.4	-11.3	4.4	-19.2	-16.4
반도체	28.8	40.0	35.1	24.2	-17.4	-29.9	-29.1	7.4	-44.5	-33.7
자동차	-3.6	1.5	10.4	6.0	20.3	21.7	16.7	2.2	9.1	-9.5
화학	69.2	62.8	34.5	41.2	-25.5	-26.6	-24.0	2.4	-25.0	4.4
일반기계	4.1	3.8	0.5	21.7	-3.4	-1.7	-3.8	5.8	-15.8	-15.6
철강	48.4	45.7	48.6	49.6	-20.8	-10.6	-21.0	-4.8	-25.9	-4.6
조선	6.5	237.5	-49.0	-77.9	-8.9	-68.2	76.2	123.2	86.3	-42.6

주: *표는 잠정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 **반도체는 IT시장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계절적 비수기, 비대면 수요 감소에 따른 PC 수요 하락, 서버기업의 투자 수요 하락 등에 따른 메모리반도체 가격의 큰 폭 하락에 전년동월의 기저효과가 더해지며 전년동월대비 44.5% 감소**

- D램 고정가(달러): ('22.5~6)3.35 → (7)2.88 → (8~9)2.85 → (10~12)2.21 → ('23.1)1.81
- 낸드 고정가(달러): ('22.7)4.49 → (8)4.42 → (9)4.30 → ('22.10~'23.1)4.14

■ **자동차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완화되며 누적된 대기수요가 실현되는 가운데, SUV·친환경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차량의 수출비중이 확대되고, 미국에서 상업용자동차 수출비중이 확대되고 EU에서 전기차 신형모델이 출시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21.9% 증가**

- 자동차 수출액(억달러)/증감률 : ('22.1)40.9, 2.3% → ('23.1)49.8, 21.9%

3) 자동차(수송기계), 반도체, 화학, 일반기계, 철강, 조선, 석유, 무선통신기기, 섬유, 가전, 컴퓨터 주변장치를 의미하며, 자동차는 자동차부품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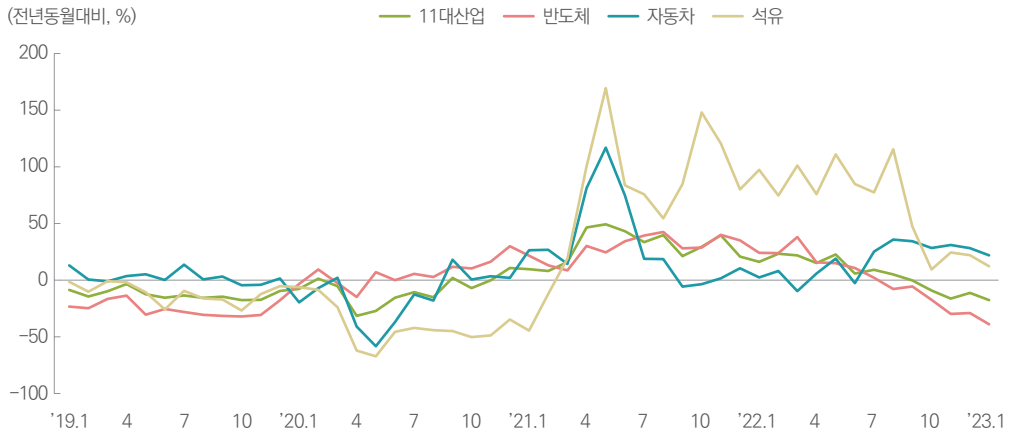
■ **석유는 경기침체 우려에도 석유 수요가 꾸준히 회복되는 가운데, 주요 수출품인 경유가 110달러 수준의 높은 가격을 유지 중이고, 베트남 최대 정유사의 주요 가동 시설에서 발생한 결함 복구 작업이 지연되면서 베트남에 대한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전년동월대비 26.0% 증가하며 23개월 연속 증가**

- 국제유가(두바이유, 달러/배럴) : ('22.1)83.47 → ('23.1)80.42, -3.7%
- 석유제품 수출단가(달러/배럴) : ('22.1)97.3 → ('23.1~3^{e})106.0, 8.9%

■ **화학은 중국의 자급률 상승(PX·PTA 등)과 코로나 감염 확산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으로 최대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한 가운데, 업황 악화에 따른 국내설비 가동률 하락 및 수출단가 하락(-14.7%) 등이 복합작용하며 전년동월대비 25.0% 감소**

- 화학 수출단가(달러/톤) : ('22.1)1,442, 15.9% → ('23.1^{e})1,230, -14.7%
- 화학 수출액(억달러)/증감률:('22.1)50.6, 41.2% → ('23.1)37.9, -25.0%

[그림 3] 11대 산업 및 주요 주력 산업의 수출증가율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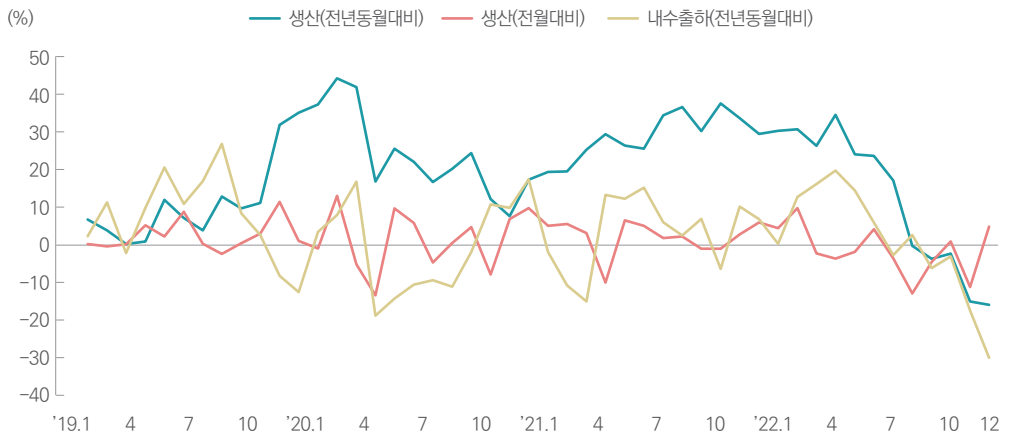
나. 제조업 생산

➤ 반도체: 1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전월대비는 증가로 전환

■ **12월 중 반도체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5.8% 감소하였으나, 전월대비는 4.9% 증가**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2.10월)-2.1 → (11월)-14.9 → (12월)-15.8
- 생산 증감률(전월대비, %): ('22.10월)1.0 → (11월)-11.0 → (12월)4.9
-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2.10월)-3.0 → (11월)-17.4 → (12월)-30.0

[그림 4] 반도체 산업 생산·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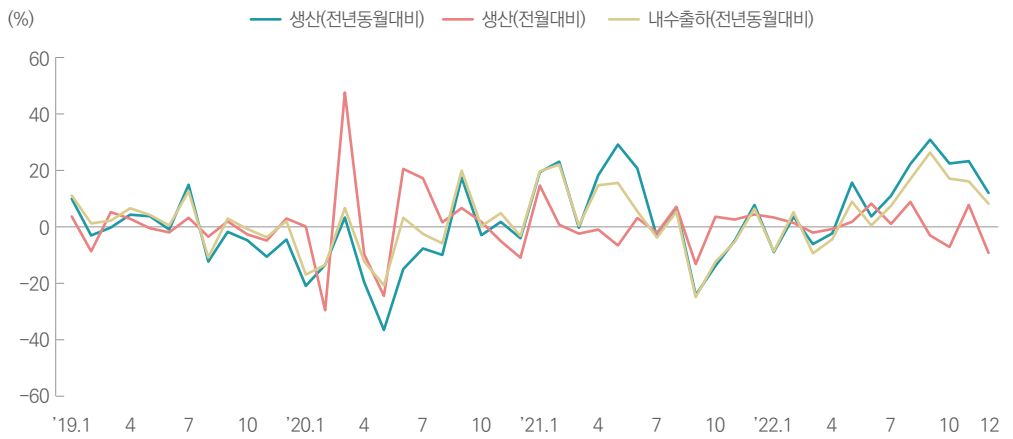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자동차: 1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반면, 전월대비 감소

■ **1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2.1% 증가, 전월대비로는 9.5% 감소**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22.10월)22.7 → (11월)23.6 → (12월)12.1
- 생산 증감률(전월대비,%): ('22.10월)-7.4 → (11월)7.7 → (12월)-9.5
-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22.10월)17.3 → (11월)16.3 → (12월)8.3

[그림 5] 자동차 산업 생산·재고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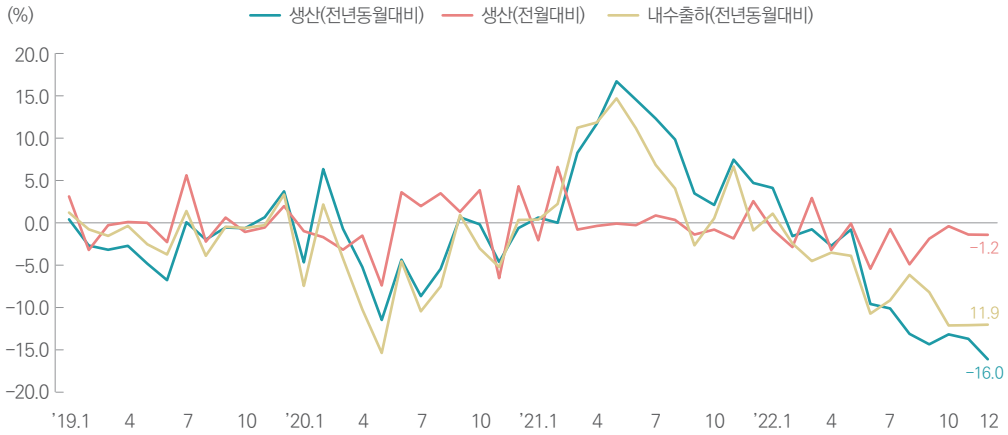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화학: 1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감소

■ **12월 화학산업의 생산은 기초화학물질 제조업(−11.7%)과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21.4%)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6.0%, 전월대비로는 1.2% 감소**

- 기초화학물질의 경우 중국 및 동남아의 석유화학 자급률 상승에 따른 수요 감소와 화물연대 2차 파업의 영향으로, 합성고무의 경우 의료용 장갑에 대한 수요 감소로 생산량이 줄어든 데 기인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22.10월) -13.0 → (11월) -13.5 → (12월) -16.0
- 생산 증감률(전월대비,%): ('22.10월) -0.2 → (11월) -1.2 → (12월) -1.2
-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2.10월) -12.0 → (11월) -11.9 → (12월) -11.9

[그림 6] 화학산업 생산·내수 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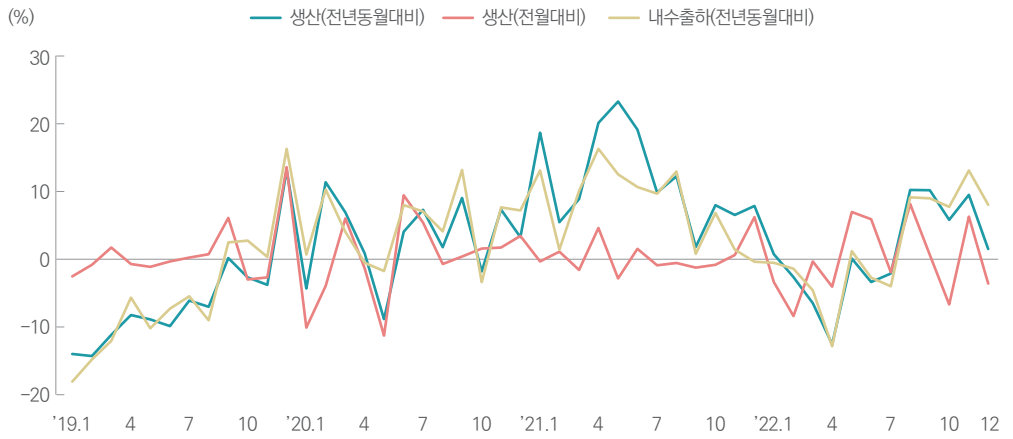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일반기계: 1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 전월대비는 감소로 전환

■ **12월 중 일반기계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7%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는 3.4% 감소**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2.10월)5.9 → (11월)9.6 → (12월)1.7
- 생산 증감률(전월대비, %): ('22.10월)-6.5 → (11월)6.4 → (12월)-3.4
-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2.10월)7.9 → (11월)13.2 → (12월)8.2

[그림 7] 일반기계 산업 생산·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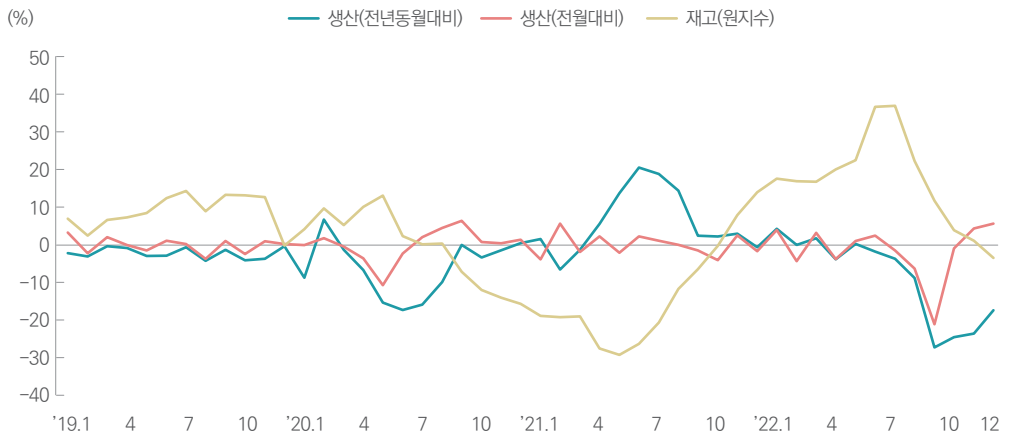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철강: 1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감소한 반면, 전월대비 증가

■ **1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7.6% 감소하였지만, 전월대비로는 5.8% 증가**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22.10월)-24.7 → (11월)-23.8 → (12월)-17.6
- 생산 증감률(전월대비,%): ('22.10월)-0.8 → (11월)4.5 → (12월)5.8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22.10월)3.9 → (11월)1.2 → (12월)-3.5

[그림 8] 철강 산업 생산·재고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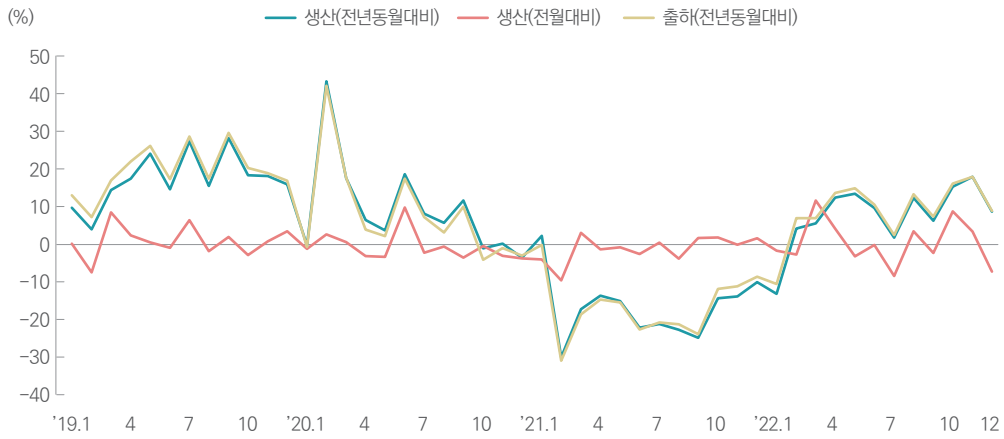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조선: 12월 「생산」과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모두 증가세가 지속

■ 10월 중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9.1% 증가하였으며, 출하도 9.3% 증가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2.10월)15.8 → (11월)18.4 → (12월)9.1
- 생산 증감률(전월대비, %): ('22.10월)9.2 → (11월)3.7 → (12월)-7.1
- 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2.10월)16.6 → (11월)18.4 → (12월)9.3

[그림 9] 조선 산업 생산·출하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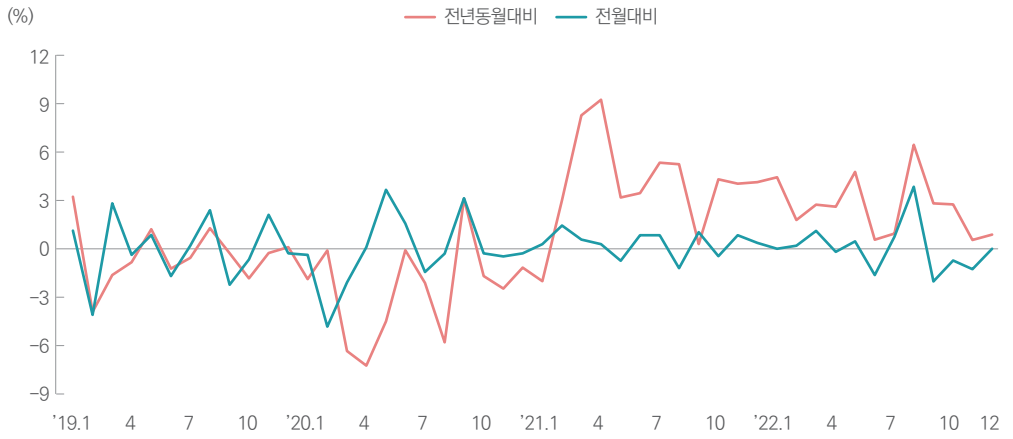
다. 서비스업 생산

도매 및 소매업: 1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세가 이어졌으나, 전월대비는 보합세 기록

■ **12월 중 도매 및 소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0.9%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는 하락세에서 보합으로 전환**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2.10월)2.8 → (11월)0.5 → (12월)0.9
- 생산 증감률(전월대비, %): ('22.10월)-0.7 → (11월)-1.3 → (12월)0.0

[그림 10] 도매 및 소매업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금융 및 보험업: 1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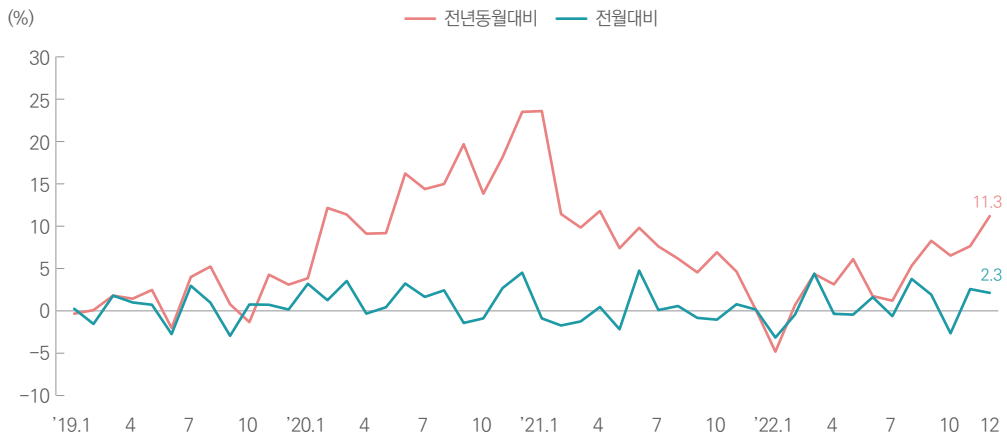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부문이 기저효과로 26.8% 감소한 반면, 기타 금융업을 중심으로 금융업(14.7%)과 생명보험업을 중심으로 보험업(49.3%)이 증가하면서 금융 및 보험업 생산이 전년동월대비 11.3% 증가**

- 금융업의 경우 기업대출 잔액은 감소하였지만[4] 금리 상승으로 영업실적이 개선되었고 보험업의 경우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출시된 신상품의 판매가 증가된 데 기인
- 전월대비로는 보험업(12.9%)과 금융업(1.4%)이 증가하면서 2.3% 증가

4) 기업의 연말 재무비율 관리 등을 위한 일시적 상환, 은행의 부실채권 매각 및 상각 등 계절적 요인에 의해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이 2022년 12월 기준으로 9.4조원(대기업 6.1조원, 중소기업 3.3조원) 순감(한국은행, "2022년 12월중 금융시장 동향," 한국은행 보도자료, 2023.1.12.)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2.10월) 6.6 → (11월) 7.7 → (12월) 11.3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2.10월) -2.6 → (11월) 2.7 → (12월) 2.3

[그림 11] 금융 및 보험업 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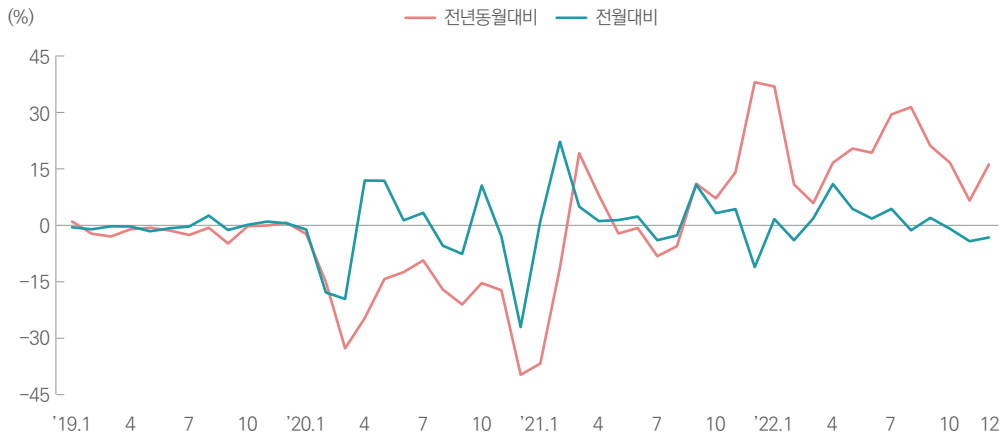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숙박 및 음식점업: 1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반면, 전월대비 감소

■ 1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6.4% 증가, 전월대비는 3.0% 감소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22.10월)16.9 → (11월)6.8 → (12월)16.4
- 생산 증감률(전월대비,%): ('22.10월)-0.7 → (11월)-4.0 → (12월)-3.0

[그림 12] 숙박 및 음식점업 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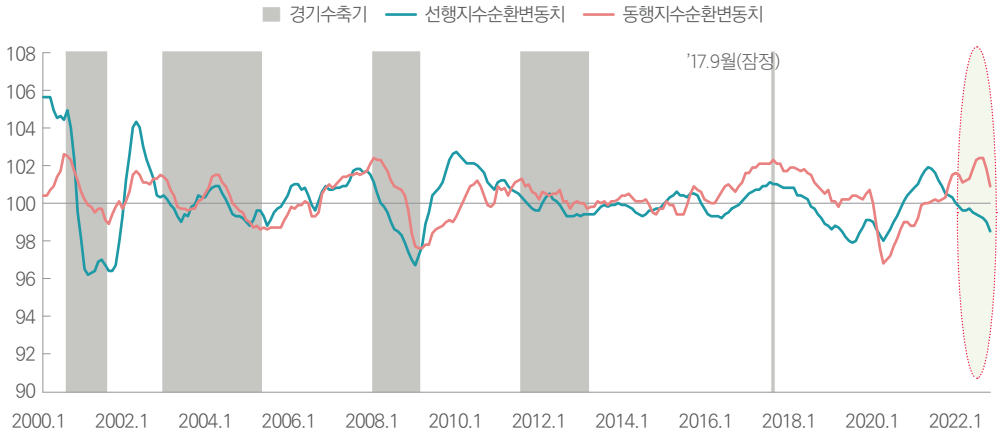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라. 경기종합지수

12월 중 「경기종합지수」는 경기동행 및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모두 전월에 비해 하락폭 확대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100.9)는 전월에 이어 하락하였고, 광공업생산, 수입액 등의 구성지표를 중심으로 하락폭 확대**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전월대비, p):('22.10월)0.0 → (11월)-0.6 → (12월)-0.9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98.5)는 6개월 연속 하락하였고, 건설수주액, 장단기금리차, 경제심리지수 등을 중심으로 하락폭 확대**
  -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전월대비, p):('22.10월)-0.1 → (11월)-0.2 → (12월)-0.5

[그림 13]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주: 1) 순환변동치는 종합지수에서 비경기적 요인(계절요인 및 불규칙요인)을 제거한 지표
2)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 광공업생산, 서비스업생산, 건설기성액, 소매판매액, 내수출하, 수입액, 비농림어업취업자수
3) 선행종합지수 구성지표: 재고순환지표, 경제심리지수, 기계류내수출하, 건설수주액, 수출입물가비율, 코스피, 장단기금리차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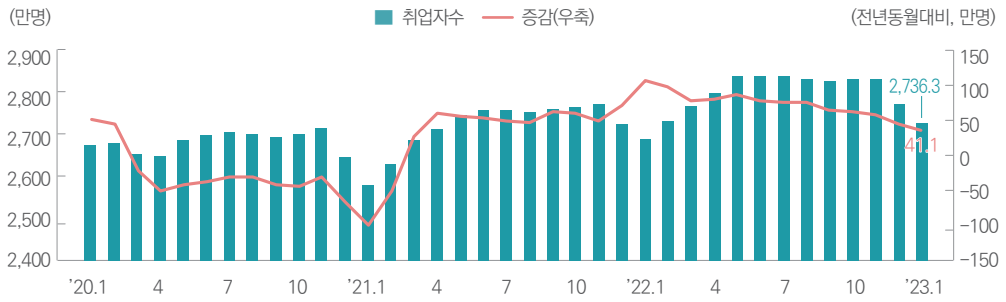
2 고용

1월 취업자 수는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증가세는 지속 둔화

■ **1월 취업자 수는 2736.3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1.1만명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은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전월대비 3개월 연속 감소**

-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2.11월)62.6 → (12월)50.9 → ('23.1월)41.1
- 취업자 수 증감(계절조정, 전월대비, 만명): ('22.11월)-1.1 → (12월)-4.0 → ('23.1월)-2.7

[그림 14] 전체 취업자 수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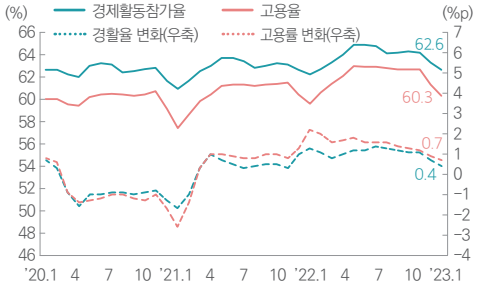
■ **경제활동참가율(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 비중)은 62.6%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고용률(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중)은 60.3%로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 ('22.11월)64.2 → (12월)63.3 → ('23.1월)62.6
- 고용률(%): ('22.11월)62.7 → (12월)61.3 → ('23.1월)60.3

■ **실업률(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비율)은 3.6%로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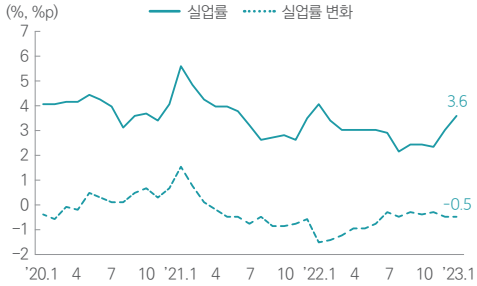
- 실업률(%): ('22.11월)2.3 → (12월)3.0 → ('23.1월)3.6

[그림 15]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16] 실업률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월 「산업별 취업자 수」는 서비스업의 증가세가 확대된 반면, 제조업은 감소 전환

■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3.5만명 감소하여 15개월만에 감소 전환**

•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2.11월)10.1 → (12월)8.6 → ('23.1월)-3.5

■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52.7만명 증가하여 증가폭 확대**

•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2.11월)45.4 → (12월)44.7 → ('23.1월)52.7

■ **건설업 취업자 수는 3.9만명 감소하여 '22.12월 감소 전환 이후 감소세 지속**

• 건설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2.11월)1.1 → (12월)-1.2 → ('23.1월)-3.9

1월 「연령별 취업자 수」는 고령층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세 지속, 청년층 및 40대는 감소

■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40.0만명 증가하여 높은 증가세 지속**

• 고령층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2.11월)47.9 → (12월)44.0 → ('23.1월)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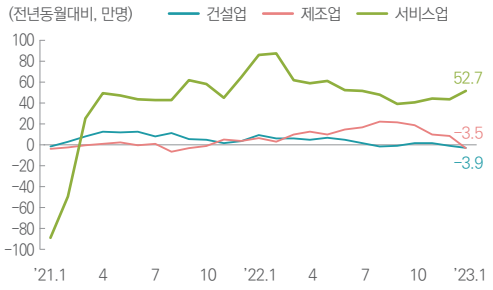
■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5.1만명 감소하여 3개월 연속 감소 지속**

• 청년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2.11월)-0.5 → (12월)-2.5 → ('23.1월)-5.1

■ **50대와 30대 취업자 수는 증가세 지속한 가운데, 40대 취업자 수는 감소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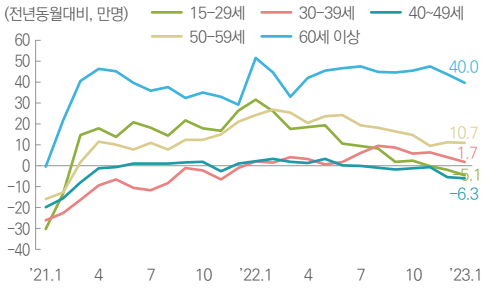
• 30대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2.11월)6.6 → (12월)4.2 → ('23.1월)1.7
• 40대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2.11월)-0.6 → (12월)-5.7 → ('23.1월)-6.3
• 50대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2.11월)9.2 → (12월)11.0 → ('23.1월)10.7

[그림 17]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18] 연령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월 「직업별 취업자 수」[5]는 중숙련 직업 취업자만 전년동월대비 감소

■ **고숙련 직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3.5만명 증가하였으며 '22년 3월 이후 23개월째 증가세 유지**

• 고숙련 직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2.11월)27.4 → (12월)29 → ('23.1월)33.5

■ **중숙련 직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7.9만명 감소하였으며 2개월째 감소세 유지**

• 중숙련 직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2.11월)1 → (12월)-7.4 → ('23.1월)-17.9

■ **저숙련 직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6.4만명 증가하였으며 14개월째 증가세 유지**

• 저숙련 직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2.11월)26.1 → (12월)28.4 → ('23.1월)26.4

1월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는 상용근로자만이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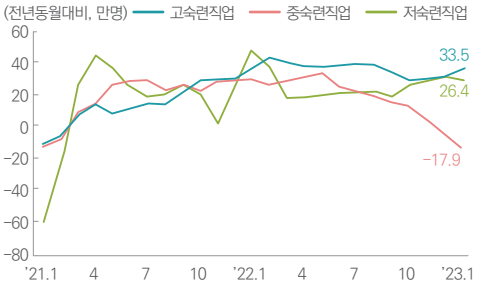
■ **임금근로자는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45.3만명 증가하였으나, 이는 주로 상용근로자의 높은 증가세로 인한 결과**

• 상용근로자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2.11월)67.8 → (12월)63.6 → ('23.1월)57.5
• 임시근로자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2.11월)-8.3 → (12월)-2.2 → ('23.1월)-5.2
• 일용근로자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2.11월)-8.4 → (12월)-7.6 → ('23.1월)-7.0

■ **비임금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4.3만명 감소하였으며, 2개월째 하락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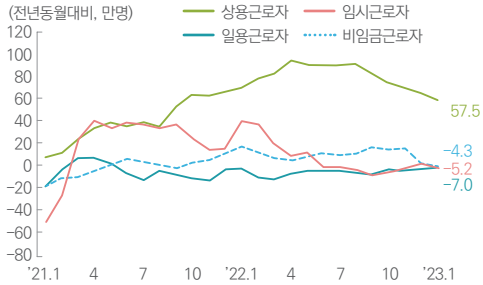
• 비임금근로자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2.11월)11.5 → (12월)-2.7 → ('23.1월)-4.3

[그림 19] 직업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0]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5) 직업의 숙련 별 분류는 OECD(2019) "Where Have the Middle Class Job Gone?"을 인용. "고숙련 직업"은 한국표준직업분류 중 관리자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중숙련 직업"은 사무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저숙련 직업"은 서비스 종사자, 판매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로 구성.

1월 「종사자 규모별 취업자 수」는 300인 사업체 기준 전 규모에서 전년동월대비 증가

■ **300인 이상 사업체 취업자는 전년동월 대비 3.99%증가하였지만, 증가세는 둔화**

-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변화율,%)): ('22.11월)13.9(4.79) → (12월) 13.2(4.58) → ('23.1월)11.5(3.99)

■ **300인 미만 사업체 취업자는 전년동월 대비 1.26%증가하였지만, 증가세는 둔화**

- 30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변화율,%)): ('22.11월)48.6(1.95) → (12월) 37.8(1.55) → ('23.1월)29.5(1.26)

12월 「빈 일자리 수」는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지만, 증가세는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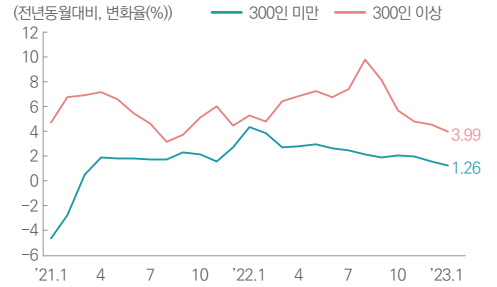
■ **300인 이상 사업체의 빈 일자리 수는 880건 감소하여 5개월째 감소세 유지**

- 300인 이상 사업체 빈 일자리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천건(변화율,%)): ('22.10월)-0.58(-7.8) → (11월)-1.05(-13.6) → (12월)-0.88(-9.9)

■ **300인 미만 사업체의 빈 일자리 수는 1.9만건 증가하여 2021년 2월 이후 23개월째 증가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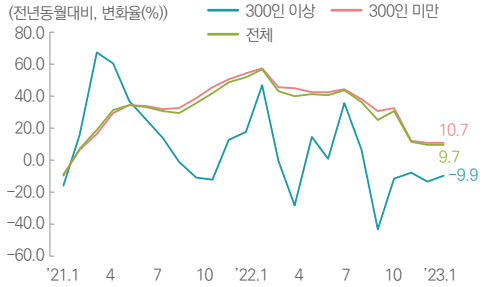
- 300인 미만 사업체 빈 일자리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천건(변화율,%)): ('22.10월)22.05(12.3) → (11월)18.21(10.5) → (12월)19.33(10.7)

[그림 21] 종사자 규모별 취업자 변화율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2] 빈 일자리 수 변화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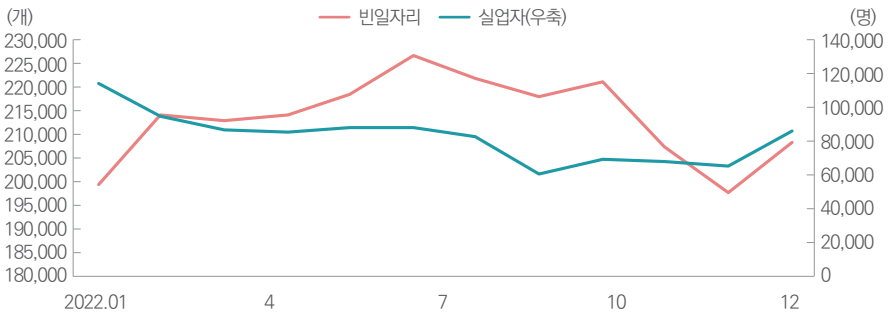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Box 1] 빈 일자리 지표 설명

■ **노동시장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빈 일자리는 주요 고용지표 중 하나**

- 빈 일자리 정보는 매월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를 통해 공표
  - 실업자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하여 가계측면의 정보를 제공한다면, 빈 일자리는 「사업체노동력조사」를 통하여 사업체측면의 정보를 제공
- 빈 일자리는 조사 기준월의 마지막 영업일 현재 구인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 달 이내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 수를 의미
  - 현재 구인활동 중이고 두 달 이후 일이 시작되는 경우, 빈 일자리에 포함되지 않음
  - 한 달 이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라 하더라도 채용이 확정된 경우, 빈 일자리에 포함되지 않음
- 빈 일자리는 충족되지 않은 노동수요로 해석 가능
  - 노동 공급 측면에서의 실업에 대응하는 개념
  - 노동시장 경색도(labor market tightness)=빈 일자리(노동수요)/실업자(노동공급)
- 2022년 한국의 빈 일자리는 상반기 증가하다가, 하반기에는 감소하는 추세
  - 실업자의 경우, 2022년 동안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12월 들어 소폭 증가

[2022년 빈 일자리와 실업자 추이]



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빈일자리), 경제활동인구조사(실업자)

■ **빈 일자리 정보는 IMF를 비롯하여 많은 기관의 연구에 사용하는 지표**

- IMF(2022) "Labor market tightness in advanced economics"
  - 포스트 코로나 시국에서 고용률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빈 일자리가 늘어나는 현상을 분석
- KDI(2017) "미스매치에 의한 실업에 대한 연구"
  - 미스매치는 구직자와 빈 일자리 간의 매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의미
  - 2013년 이후 미스매치가 한국의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서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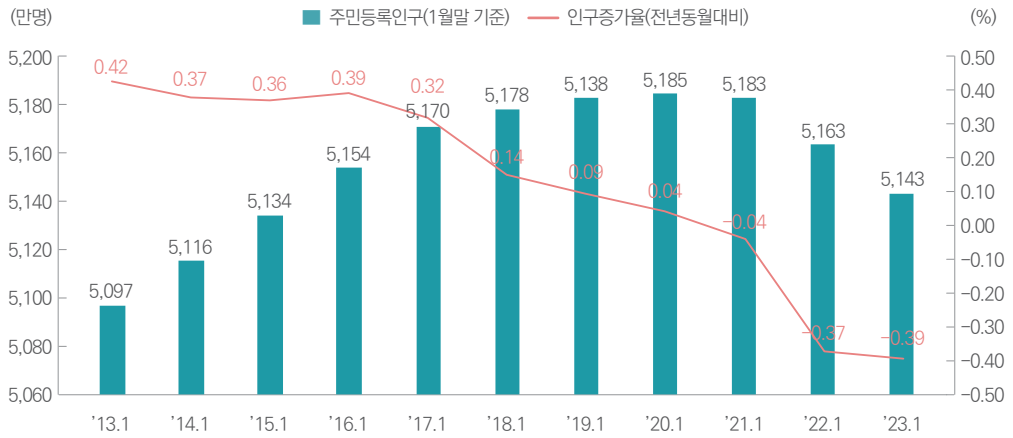
3 인구

1월 「주민등록인구」는 전년동월대비 20만 2천명(-0.39%) 감소

■ **주민등록인구는 2020년부터 감소하였으며, 2023년 1월 주민등록인구는 5,143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39% 감소**

• 각 연도 1월말 기준 전년동월대비 인구증가율은 2020년까지 증가세(0.04%)를 보였으나, 2021년(-0.04%)부터 감소세로 전환한 뒤 2022년 -0.37%, 2023년 -0.39%로 감소폭 확대

[그림 23] 주민등록인구 및 인구증가율 추이(2013.1~20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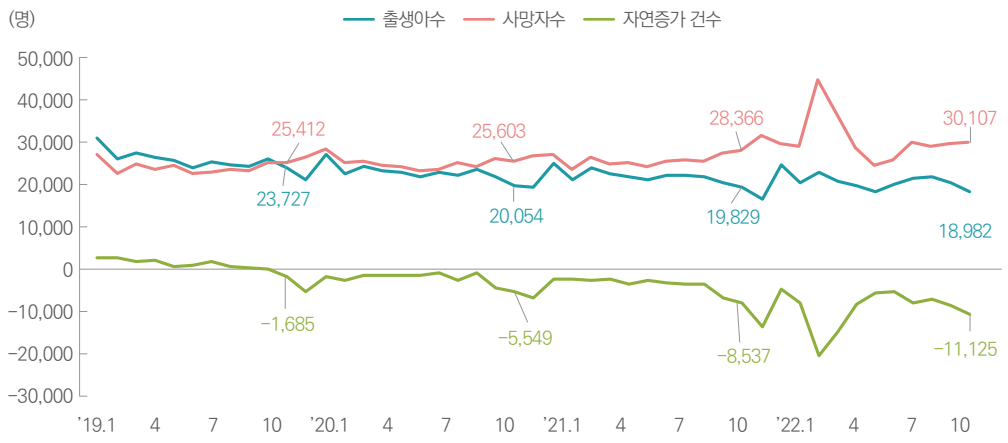
주: 각 연도 1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임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11월 「출생아 수」는 감소세를 지속하고 「사망자 수」를 하회하면서 37개월째 자연감소 지속

■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11월 출생아 수는 전년동월대비 847명(-4.3%) 감소한 1만 8,982명을 기록**

■ **11월 사망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741명(6.1%) 증가한 3만 107명을 기록**

[그림 24] 월별 출생아 수, 사망자 수 및 자연증가건수 추이(2019.1~202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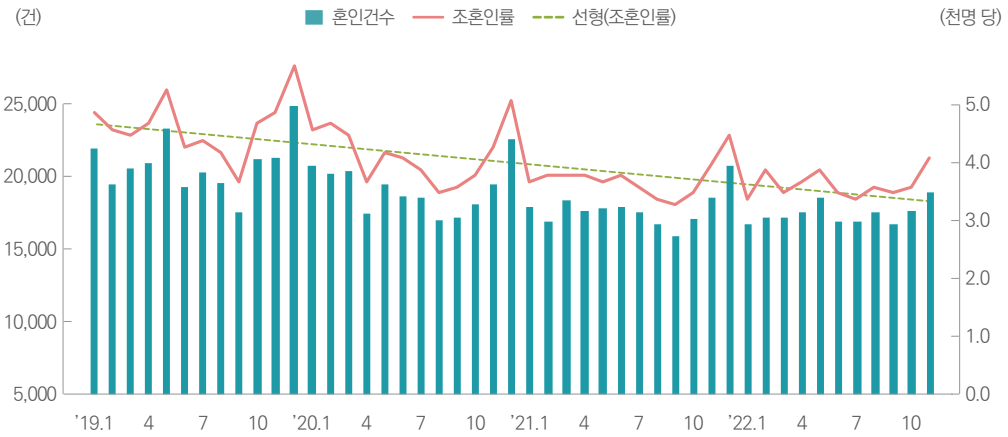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11월 「혼인건수」 및 「조혼인률」은 기저효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

- **11월 혼인건수는 1만 7,458건으로 전년동월대비 370건(2.2%) 증가하였고, 조혼인율은 4.1건으로 전년동월대비 0.1건 증가**
  - 각 연도 11월 기준, 조혼인률은 2019년 4.9건, 2020년 4.3건, 2021년 4.0건

[그림 25] 월별 혼인건수 및 조혼인률 추이(2019.1~2022.11)



주: 점선은 조혼인률의 추세선을 의미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BOX 2] 중국의 인구

■ **2021년 기준 중국의 인구수는 14억 2,589만명**

- 중국의 인구는 1990년 이후 증가세가 추세적으로 축소되어 2021년 6.4만명 증가를 기록하였고, 2022년부터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 2022년 중국의 인구수는 14억 1,175만명으로 전년보다 85만명 감소하였으며, 인구통계를 작성한 61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중국 통계청)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는 2023년부터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인구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

■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2020년 1.28명으로 초저출산 수준에 진입하였으며, 2021년은 1.16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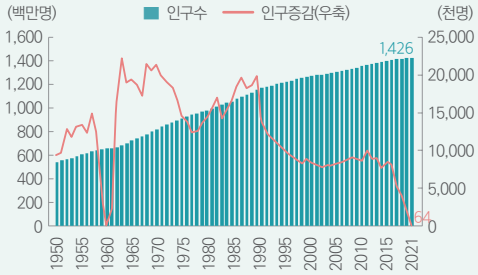
-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대 7명대를 기록한 이후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1991년(1.93명) 이후 1명대 수준을 지속
- 1980년 시행된 한자녀정책이 2016년 폐지되었지만 이후에도 출산율은 반등하지 않았고, 오히려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며 출산율은 크게 하락

■ **2021년 기준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3.1%로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음**

- 2001년 7.1%를 기록하여 고령화사회(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7% 이상)에 진입하였고, 20년 만에 13.1%로 확대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에 따르면 중국은 2023년 고령사회(고령인구 비중 14% 이상)에, 2033년에는 초고령사회(고령인구 비중 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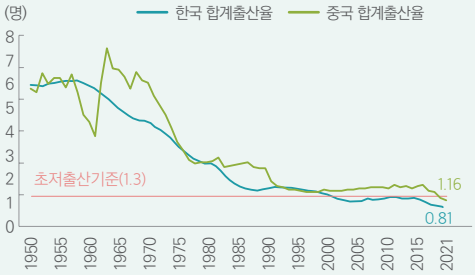
※ 참고: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 2018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중국의 인구 및 인구 증감]



자료: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한국과 중국의 합계출산율 추이]



자료: UN, 통계청

III

경제동향

금융·자산·재정

국내 금융시장은 미 연준의 통화긴축 완화 기대 등으로 「국고채금리」 및 「환율」이 하락

■ **1월 국고채금리는 미 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속도 조절 가능성,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전년말 대비 하락**

- 국고채금리(3년 만기, %): ('22.11월말)3.7 → (12월말)3.7 → ('23.1월말)3.3

■ **1월 원/달러 환율은 대외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약화, 미국과 주요국 간 금리격차 축소에 따른 달러화 가치 조정 등으로 전년말 대비 하락**

- 원/달러 환율: ('22.11월말)1,332 → (12월말)1,267 → ('23.1월말)1,229

1월 「석유, 금속·광물, 귀금속, 농산물」 가격 및 지수는 전월대비 상승, 「석탄, 천연가스」는 하락

■ **석유 가격은 전월대비 3.3% 상승한 반면, 천연가스, 석탄은 각각 2.1% 16.1% 하락**

- 석유 가격(달러/배럴): ('22.11월)87.4 → (12월)78.1 → ('23.1월)80.4
- 석탄 가격(달러/톤): ('22.11월)342.2 → (12월)379.2 → ('23.1월)318.0
- 천연가스 가격(달러/mmbtu): ('22.11월)21.7 → (12월)20.6 → ('23.1월)20.2

■ **금속·광물, 귀금속, 농산물, 식품 지수는 각각 6.0%, 4.9%, 0.5%, 0.4% 상승**

- 농산물 지수: ('22.11월)115.8 → (12월)115.0 → ('23.1월)115.6
- 식품 지수: ('22.11월)137.5 → (11월)135.4 → ('23.1월)136.0
- 금속·광물 지수: ('22.11월)100.9 → (12월)107.6 → ('23.1월)114.0
- 귀금속 지수: ('22.11월)131.1 → (10월)138.1 → ('23.1월)144.9

1월 전력거래량은 역대 월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전력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

■ **전력거래량은 역대 월 최고 전력거래량 기록을 갱신하였으며, 최대전력은 역대 1월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전력수급은 안정적**

■ **석탄 및 가스발전의 연료비 단가 상승으로 인해 전력거래소에서 발전사에 지급한 1kWh당 정산단가는 162.6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8.3% 상승**

1월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시중 대출금리 인하 기조 등으로 하락폭이 축소

■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수도권(-2.60% → -1.86%)과 지방(-1.42% → -1.15%)의 하락폭이 축소되면서 전국(-1.98% → -1.49%) 하락폭 축소**

1 금융시장

가. 금리

1월 우리나라 「국고채금리」가 하락한 가운데 주요국 「국채금리」도 전반적 하락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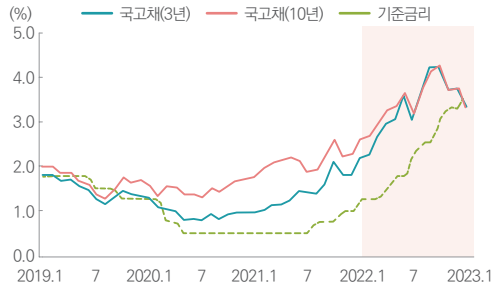
■ **2023년 1월 국고채금리는 글로벌 물가불안이 완화되는 가운데 미 연준의 통화긴축 기조 완화 가능성이 부각되며 하락**

- 1월말 한국 국고채(3년) 금리는 3.3%로 전년말 대비 0.4%p 하락하였으며, 국고채(10년) 금리도 전년말 대비 0.4%p 하락한 3.3%를 기록
- 다만 1월말 기준 국고채(3년) 금리와 국고채(10년) 금리는 전년동월 대비로는 각각 1.1%p, 0.7%p 상승한 수준
- 한편 한국은행은 1월 13일 기준금리를 3.25%에서 3.50%로 0.25%p 인상

■ **한편 1월 미국, 유로존 국채(10년) 금리는 실물경기 둔화에 따른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 등으로 하락한 반면 일본 국채(10년) 금리는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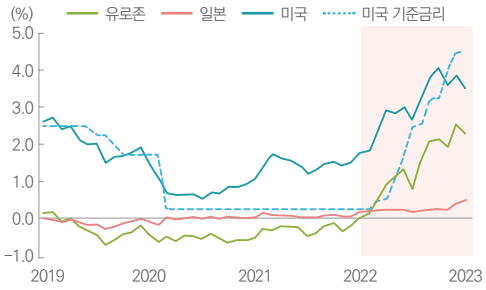
- 미국 국채(10년) 금리는 전년말 3.9%에서 1월말 3.5%, 유로존 국채(10년)는 2.6%에서 2.3%로 하락
- 반면 일본 국채(10년) 금리는 일본은행의 장단기 금리조작[6] 변동폭 확대 등으로 전년말 0.4%에서 1월말 0.5%로 상승

[그림 1] 우리나라 국고채 및 기준 금리 추이



주: 국고채 금리는 월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그림 2] 주요국 국채(10년) 추이



주: 국고채 금리는 월말 기준
자료: Datastream

6) 2022년 12월 일본은행은 장기금리인 10년물 국채 금리의 변동 폭을 기존 '±0.25%'에서 '±0.5%'로 확대

1월 「회사채 금리」와 2022년 12월 「기업대출 금리」 모두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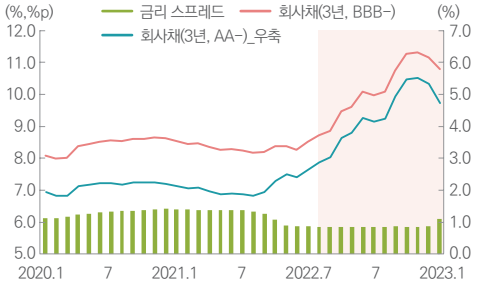
■ **1월 국내 회사채 금리는 미 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긴축기조 완화 기대,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하락**

- 1월 회사채 3년물(AA-) 금리는 전년말 대비 0.6%p 하락한 4.7%, 회사채 3년물(BBB-) 금리는 전년말 대비 0.4%p 하락한 10.8%를 기록
- 회사채(3년, AA-등급)와 회사채(3년, BBB-등급) 금리가 각각 4%대, 10%대로 하락한 것은 2022년 9월 이후 처음

■ **2022년 12월 기업대출 금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 금리 모두 하락한 가운데 중소기업대출 금리가 대기업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며 대출 금리차는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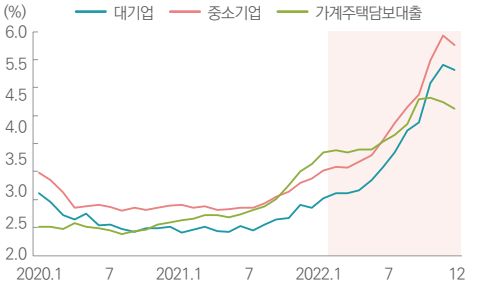
- 12월 기준 대기업대출 금리는 전월 대비 9bp 하락한 5.3%,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전월 대비 17bp 하락한 5.8%를 기록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대출 금리차가 전월 52bp에서 44bp로 축소
- 한편 가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달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2022년 12월 전월 대비 11bp 하락한 4.6%를 기록

[그림 3] 회사채 금리 추이



주: 회사채 금리는 월평균 금리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그림 4] 기업 및 가계 대출금리 추이



주1) 예금은행 대출 기준
주2) 신규취급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나. 환율

1월 「원/달러 환율」 및 「주요국 통화의 대달러 환율」은 하락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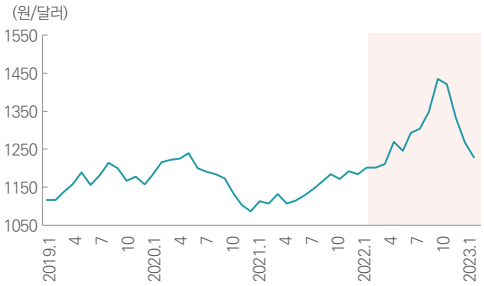
■ **1월 원/달러 환율은 대외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약화, 미국과 주요국 간 금리격차 축소에 따른 달러화 가치 조정 등으로 전년말 대비 하락**

- 1월말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229원으로 전년말 1,267원 대비 3.0% 하락
- 원/달러 환율은 2022년 10월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1월말 원/달러 환율은 2022년 9월말 1,435원 대비로는 14.4% 하락

■ **1월 유로화, 엔화, 위안화의 달러화 대비 환율도 전월 대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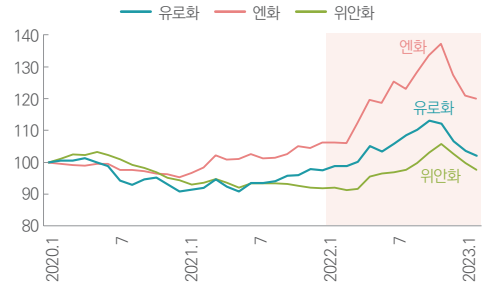
- 1월말 달러화 대비 유로화, 엔화, 위안화 환율은 글로벌 물가리스크 완화, 미국과 주요국 간 금리격차 축소 등으로 전년말 대비 각각 1.5%, 0.8%, 2.1% 하락
- 한편 1월말 기준 달러화 대비 유로화, 엔화, 위안화 환율은 전년동월 대비로는 각각 3.4%, 13.0%, 6.2% 상승한 수준

[그림 5] 원/달러 환율 추이



주: 원/달러 환율은 월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그림 6] 주요 통화의 달러 대비 환율 추이



주1) 2020년 1월말 주요 통화의 달러 대비 환율을 100으로 조정
주2) 주요국 환율은 월말 기준
자료: Bloomberg

다. 주가

1월 「국내 주가」와 「글로벌 주가」는 모두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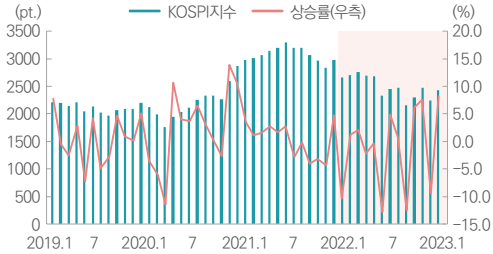
■ **국내 주가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긴축과 관련된 불확실성 완화,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으로 상승**

- 1월말 국내 KOSPI지수는 전년말(2,236) 대비 8.4% 상승한 2,425를 기록
- 다만 1월말 KOSPI지수는 전년동월의 2,663 대비로는 8.9% 하락한 수준

■ **외국인 투자자는 2022년말 국내 주식을 1.7조원 순매도하였으나 2023년 1월 들어 6.5조원의 국내주식을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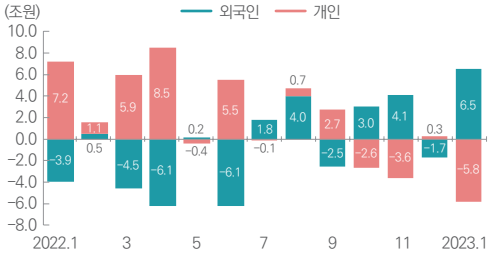
- 2023년 1월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 6.5조원은 2013년 9월 이후 최대 규모
- 반면 개인 투자자는 2022년 중 월평균 2.1조원의 국내주식을 순매수하였으나 2023년 1월 5.8조원의 국내주식을 순매도

[그림 7] KOSPI 주가 추이



자료: Fnguide

[그림 8] 투자자별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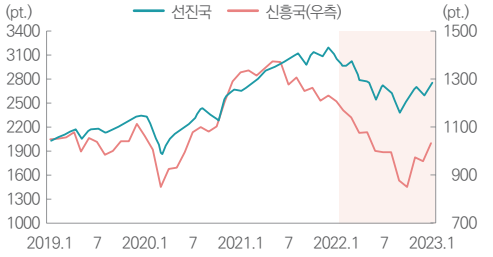


자료: Fnguide

■ **1월 선진국과 신흥국 주식시장은 글로벌 물가리스크 완화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약화되며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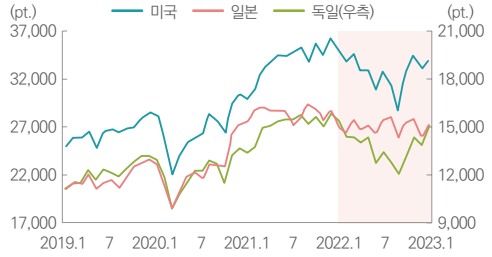
- 1월말 기준 선진국 주가는 전년말 대비 7.0%, 신흥국 주가는 7.9% 상승
- 한편 1월말 기준 미국, 독일, 일본 주가도 전년말 대비 각각 2.8%, 8.7%, 4.7% 상승

[그림 9] 글로벌 주가 추이



주: 선진국과 신흥국은 주가는 MSCI지수 기준
자료: Bloomberg

[그림 10] 주요국 주가 추이



주: 미국 주가는 다우존스지수, 일본 주가는 니케이 지수,
독일 주가는 DAX지수 기준
자료: Bloomberg

2 에너지 및 원자재

가. 국제 가격

1월 「석유」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하락한 반면, 전월대비 상승

■ **원유 가격은 배럴당 80.4달러로 전년동월대비 4.2% 하락한 반면 전월대비 3.0% 상승**

• 국제원유 가격(달러/배럴): ('22.11월)87.4 → (12월)78.1 → ('23.1월)80.4

1월 「석탄」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상승한 반면, 전월대비 하락

■ **석탄 가격은 톤당 318달러로, 전년동월대비 61.5% 상승한 반면, 전월대비 16.1% 하락**

• 석탄 가격(달러/톤): ('22.11월)342.2 → (12월)379.2 → ('23.1월)318.0

1월 「천연가스」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상승한 반면, 전월대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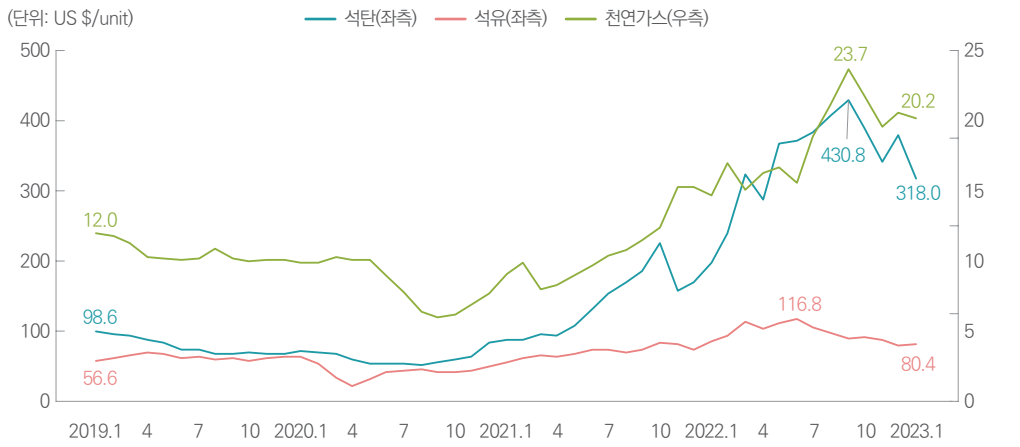
■ **천연가스 가격은 백만비티유(MMbtu)당 20.2달러로 전년동월대비 37.2% 상승한 반면, 전월대비 2.1% 하락**

• 미국 내 천연가스 가격(3.3달러/MMbtu)은 전년동월대비 24.5%, 전월대비 40.5% 하락하였고, 유럽 천연가스 가격(20.2달러/MMbtu)은 전년동월대비 28.6%, 전월대비 44.0% 하락

• 천연가스 가격(달러/MMbtu[7]): ('22.11월)19.6 → (12월)20.6 → ('23.1월)20.2

7) 비티유(btu: british thermal unit, 영국 열량 단위): 질량 1파운드의 물 온도를 화씨 1도(1℉)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양

[그림 11]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



주: 에너지 품목별 단위가격은 달러로 표시하며, 석유는 배럴(bbl), 석탄은 메트릭톤(mt), 천연가스는 백만비티유(MMbtu) 단위당 가격임
자료: 세계은행(World Bank), 석유수출국기구(OPEC)

1월 「농산물」 지수는 전년동월대비 하락, 전월대비 상승

- **농산물 지수는 115.6로 팜핵유, 코코넛오일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2.6% 하락한 반면, 대두박, 코코아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0.5% 상승**
  - 농산물 지수: ('22.11월)115.8 → (12월)115.0 → ('23.1월)115.6

1월 「식품」 지수는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상승

- **식품 지수는 136.0으로 닭고기, 오렌지, 바나나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6%, 전월대비 0.4% 상승**
  - 식품 지수: ('22.11월)137.5 → (11월)135.4 → ('23.1월)136.0

1월 「금속·광물」 지수는 전년동월대비 하락, 전월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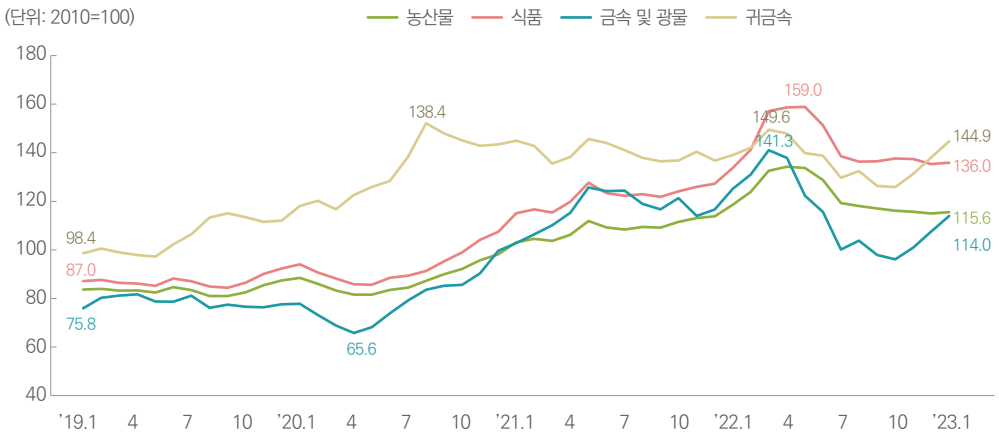
- **금속·광물 지수는 114.0로 주석, 알루미늄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9.0% 하락한 반면, 철광석과 구리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6.0% 상승**
  - 금속·광물 지수: ('22.11월)100.9 → (12월)107.6 → ('23.1월)114.0

1월 「귀금속」 지수는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상승

■ **귀금속 지수는 144.9로 금과 백금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4.2%, 전월대비 4.9% 상승**

• 귀금속 지수: ('22.11월)131.1 → (10월)138.1 → ('23.1월)144.9

[그림 12] 원자재 가격지수 추이



자료: 세계은행(World Bank), 「World Bank Commodity Price Data」

[BOX 3] 국내 에너지 수요

■ **2022년 11월 「최종에너지 소비」[8]는 전년동월대비 감소, 전월대비 증가**

- 최종에너지 소비는 액화천연가스, 열, 석탄을 중심으로 에너지원 소비가 감소하면서 전년동월대비 4.1% 감소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액화천연가스(-27.4), 열(-16.0), 석탄(-13.6), 도시가스(-10.0), 신재생 및 기타(-1.1), 석유(-0.7), 전력(-0.7)
- 전월대비로는 열, 도시가스를 중심으로 소비가 증가하면서 4.4% 증가
  - 전월대비 증감률(%): 열(58.5), 도시가스(34.5), 액화천연가스(2.6), 석탄(2.5), 석유(1.5), 전력(0.4), 신재생 및 기타(-0.7)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소비]

(단위: 1,000 toe, %)

	2019	2020	2021p	2022p				
				11월	10월	11월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합계	231,353	222,563	237,421	19,733	18,115	18,917	-4.1	4.4
전년동기대비	-0.9	-3.8	6.7	5.7	2.6	-4.1		
석탄	32,057	30,457	31,810	2,742	2,310	2,369	-13.6	2.5
석유	116,125	109,344	116,936	9,588	9,380	9,522	-0.7	1.5
액화천연가스	2,909	3,602	3,550	286	202	207	-27.4	2.6
도시가스	23,943	23,100	24,287	2,174	1,455	1,956	-10.0	34.5
전력	44,763	43,797	45,936	3,690	3,652	3,666	-0.7	0.4
열	2,647	2,770	2,900	286	151	240	-16.0	58.5
신재생 및 기타	8,910	9,493	12,002	969	965	958	-1.1	-0.7

주: 2021년, 2022년 자료는 잠정치(p)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

8) 최종에너지는 산업, 수송, 가정·상업, 그리고 공공 부문 등 최종에너지 소비 부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로, 최종소비자가 직접 사용한 1차에너지와 전환과정을 거친 2차에너지가 해당되며, 최종에너지 소비는 일반적으로 실물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됨

나. 전력수급동향

1월의 「최대전력」은 역대 1월 최고치를 기록

■ **1월 최대전력은 92.6GW로 역대 1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전력공급안정성을 의미하는 공급예비력은 10.5GW, 전력공급예비율 12.9%로 전력 수급은 안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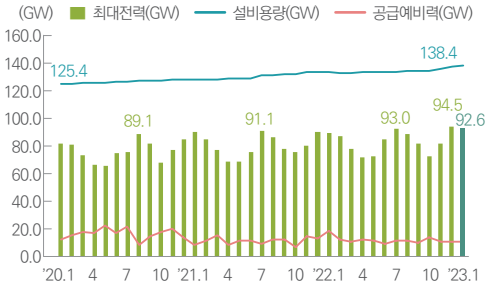
- 1월 평균기온은 -0.6℃로 평년값(-0.9℃)과 유사했으나, 1월내 기온하강폭이 1973년 이후 최대를 기록함에 따라 최대전력이 크게 상승
- 발전설비용량은 138.4GW로 전년동월대비 3.3% 증가

※ 전력공급안정성은 공급예비력을 기준으로 하며, 공급예비력이 5.5GW 미만으로 낮아질 경우 냉난방온도 관리, 수요관리 제도 시행, 추가 발전소 가동 등 '전력수급 비상조치'를 시행하며 그 이상에서는 안정적으로 판단

■ **1월 에너지원별 연료비단가는 유연탄은 전년동월대비 51.8% 상승했으며 가스발전은 전년동월대비 68.5%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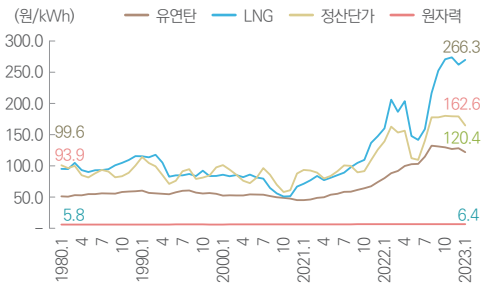
- 연료비단가는 발전비용 중 연료비만을 의미하는데, 석탄(유연탄)발전 연료비단가는 1kWh당 120.4원으로 전월(126.4원)대비 4.8%, 최고치인 8월(130.5원)대비 7.7% 하락하였으며, 가스발전 연료비단가는 266.3원으로 최고치인 11월(270.4원)보다 1.5% 하락한 수준
- 전력거래소에서 발전사에 지급한 1kWh당 정산단가는 162.6원으로 전년동월(137.4원)보다 18.3% 상승

[그림 13] 월별 최대전력 및 전력공급예비력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그림 14] 에너지원별 연료비단가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1월 「전력거래량」은 역대 월 최고치를 기록

■ **1월 전력거래량※은 53,206GWh로 전년동월대비 1.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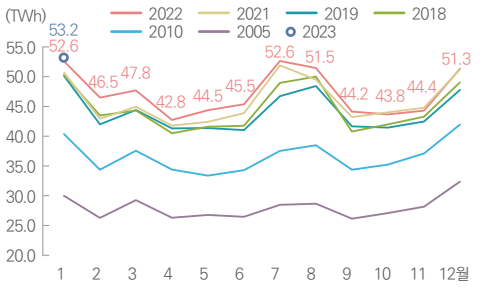
- 1월의 기상조건은 작년과 유사하였고, 명절효과로 제조업 전력수요의 감소도 예상되었으나, 1월 하순 급격한 기온하락 등으로 전력거래량은 월 최고치를 기록
- 1월 평균기온 -0.6℃(전년동월 -0.8℃), 한파일수 3.4일(전년동월 3.0일)

※ 전력거래량은 전력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된 전력량에 PPA거래량을 포함한 총 전력거래량을 의미하며, 총 발전량에서 발전소의 소내소비량과 가정용 재생에너지 설비의 자가소비량 등은 제외한 통계임

■ **1월 에너지원별 발전량은 전년동월대비 신재생 및 기타 9.6%, 가스발전 9.5%, 석탄발전 2.1% 증가했으며, 원자력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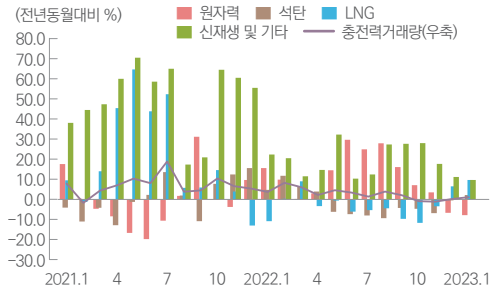
-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은 원자력 26.6%, 석탄 34.1%, 가스 30.6% 신재생 및 기타 7.7% 순

[그림 15] 월별 전력거래량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그림 16] 에너지원별 발전량 변화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12월 「전력수요」는 서비스부문과 가정, 공공 등 건물부문 난방수요로 전월대비 큰 폭 증가

■ **전년동월대비 총 전력수요는 0.7% 감소했는데, 산업부문의 수요는 1.9% 감소한데 비해 가정부문과 공공부문의 수요가 각각 1.3%와 6.8% 증가**

■ **전월대비 총 전력수요는 10.4% 증가하여 난방수요가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총 전력수요의 과반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은 전월대비 5.9% 증가한 반면, 29.2%를 차지하는 서비스부문의 전력수요는 18.2%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공공부문과 가정부문도 각각 30.1%와 6.3% 증가

[표 1] 부문별 전력수요

(단위: GWh, %)

	2020	2021		2022p				
			12월		11월	12월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계	509,270	533,431	47,251	547,933	42,491	46,928	-0.7	10.4
전년동기대비	-2.2	4.7	4.9	2.7	-0.8	-0.7		
가정부문	74,073	77,558	6,218	78,557	5,923	6,297	1.3	6.3
공공부문	23,623	25,026	2,385	25,890	1,959	2,548	6.8	30.1
서비스부문	142,881	148,315	13,800	155,548	11,602	13,717	-0.6	18.2
산업부문	268,692	281,532	24,848	287,937	23,008	24,366	-1.9	5.9

주: 부문별 전력수요는 전력판매량을 의미하며, 2022년 자료는 잠정치(p)
자료: 한국전력, 「전력통계월보」

3 부동산

1월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시중 대출금리 인하기조 등으로 하락폭이 축소

■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국 −1.49%, 수도권 −1.86%, 지방은 −1.15%로 하락폭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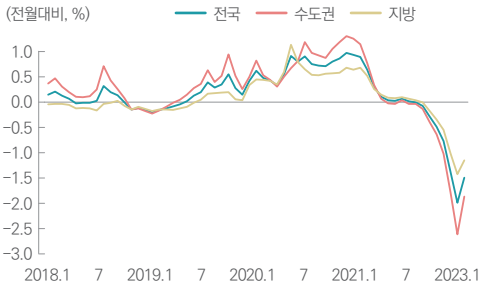
- 수도권은 시중 대출금리 인하 기조와 정부대책 발표 등으로 시장회복 기대심리가 일부 작용하면서 하락세 둔화
- 지방은 세종 −4.14%, 대구 −1.92%, 부산 1.73%, 대전 −1.71% 순으로 하락세 지속

1월 전국의 「전월세가격지수」는 학군·이주수요 등으로 하락폭 소폭 축소

■ **주택 전월세통합지수는 전국 −1.53%, 수도권 −2.17%, 지방 −0.93%로 전월보다 하락폭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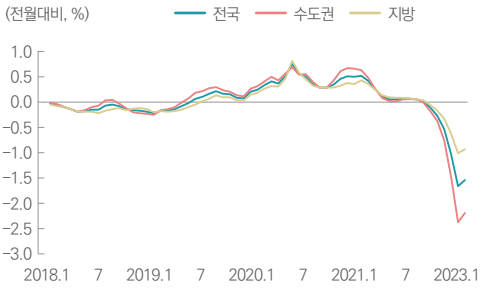
- 수도권은 일부 지역의 매물가격 하향조정 등 하락세를 지속중이나 방학 이주수요 등으로 하락폭이 소폭 축소
- 지방은 세종 −2.42%, 대구 −1.76%, 부산 −1.47%, 대전 −1.42% 등을 중심으로 전월세가격 하락세 지속

[그림 17] 권역별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주: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며,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 지역이며, 지방은 수도권 이외 지역임
자료: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그림 18] 권역별 주택 전월세 통합지수 변동률



주: 전월세 통합지수 변동률이며,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 지역이며, 지방은 수도권 이외 지역임
자료: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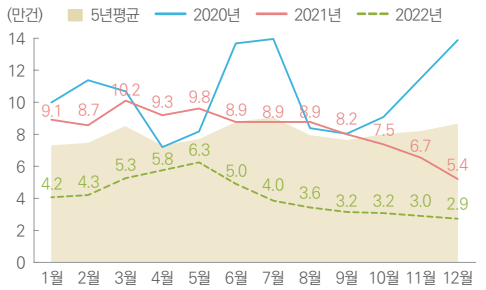
12월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전월대비 5.4% 감소하였으며, 연간 49.9% 감소

■ **주택 매매 거래량은 2만 8,603건으로 전월대비 5.4% 감소, 전년동월대비 46.8% 감소**

- 수도권(1.1만건)은 전월대비 2.6% 감소, 지방(1.7만건)은 전월대비 7.0%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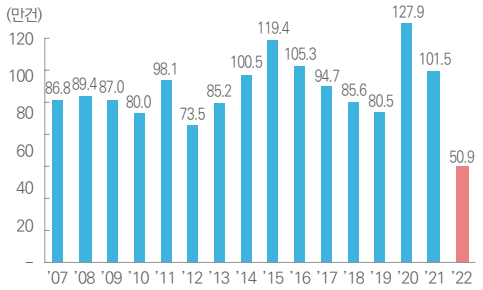
■ **연간 주택 매매 거래량은 50만 8,790건으로 전년(101.5만건) 대비 49.9% 감소**

[그림 19] 월별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



자료: 국토교통부

[그림 20] 연도별 12월 누적 주택 매매 거래량



자료: 국토교통부

12월 전국의 「전월세 거래량」은 전월대비 4.0% 증가하였으며, 연간 20.5%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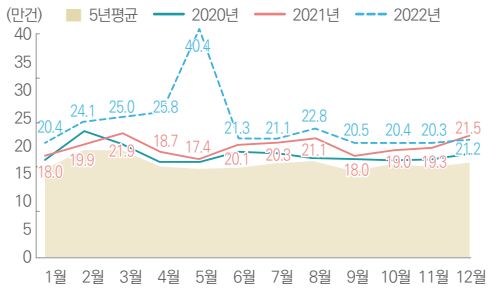
■ **전월세 거래량은 21만 1,533건으로 전월대비 4.0% 증가, 전년동월대비 1.8% 감소**

-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54.4%로 전월대비 2.2%p 증가, 전년동월대비 8.3%p 증가

■ **연간 전월세 거래량은 283만 3,522건으로 전년(234.2만건) 대비 20.5%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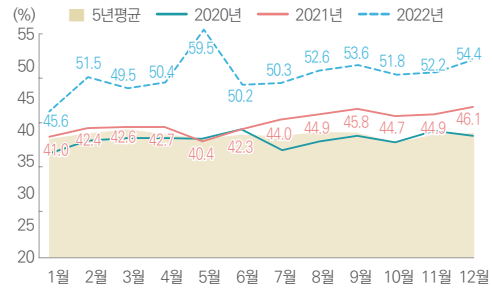
※ 5월의 거래량 증가는 일시적 신고건수 증가(미신고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 만료일('22.5.31.)이 도래됨에 따라 신고를 미뤄왔던 계약의 일시적인 신고건수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실제 전월세 거래가 증가한 것이 아닐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그림 21] 월별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



주: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
자료: 국토교통부

[그림 22]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 비중



주: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를 바탕으로 구함
자료: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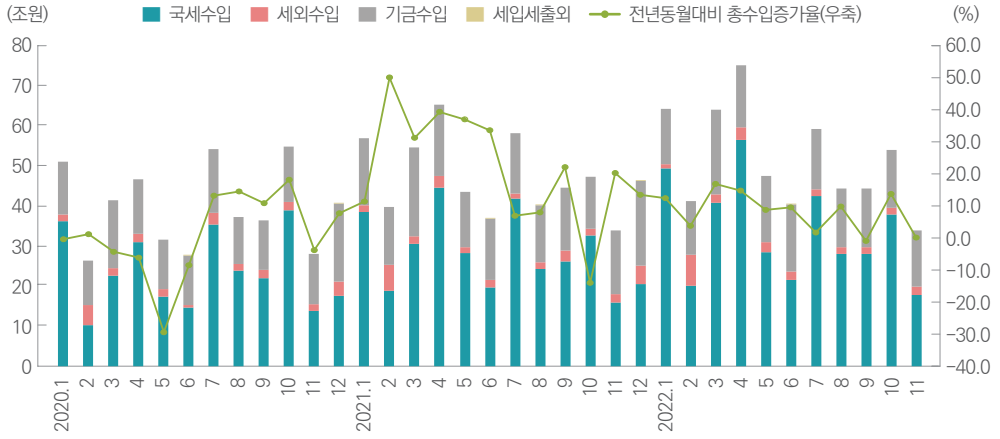
4 재정

가. 총수입

11월 월간 총수입은 34.1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0.1조원(0.3%) 증가[9)]

- **2022년 11월 국세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2조원 증가한 18조원, 1~11월 누계 국세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50.2조원 증가한 373.6조원**
  - 상용근로자수 증가로 11월 소득세는 전년 동월 대비 2.8조원 증가한 13.1조원, 법인세는 전년 동월 대비 0.1조원 증가한 1.6조원
- **2022년 11월 세외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0.1조원 감소한 2조원, 1~11월 누계 세외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1.4조원 증가한 27.4조원**
- **2022년 11월 기금수입은 자산운용수입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조원 감소한 14조원, 1~11월 누계 기금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4조원 감소한 170.5조원**

[그림 23] 월간 총수입 실적치(2020.1~2022.11)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9) 이하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와 관련된 자료는 기획재정부의 「월간재정동향」을 토대로 작성되었음. 기획재정부는 「월간재정동향」을 통해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의 실적치를 2개월의 시차를 두고 월 단위로 발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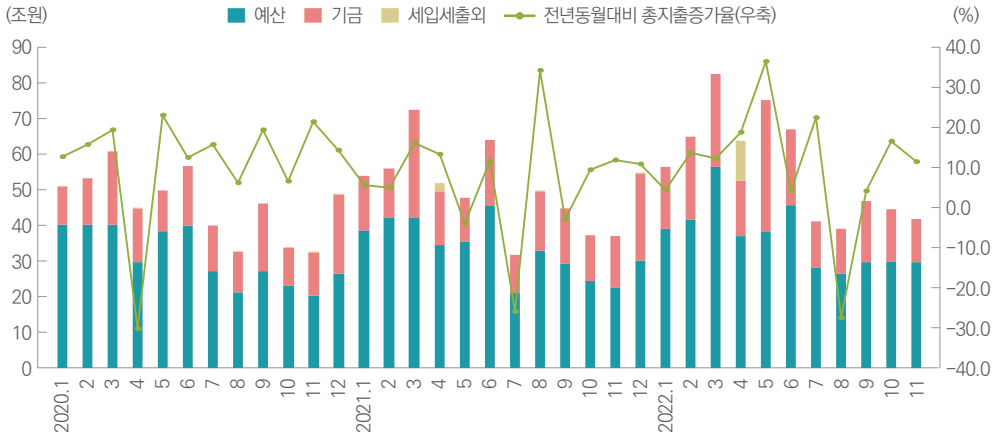
나. 총지출

11월 월간 총지출은 41.8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7조원(13.0%) 증가

- 2022년 11월 예산지출은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 지원 등)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6.9조원 증가한 29.6조원

- 2022년 11월 기금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2.2조원 감소한 12.2조원

[그림 24] 월별 총지출 실적치(2020.1~202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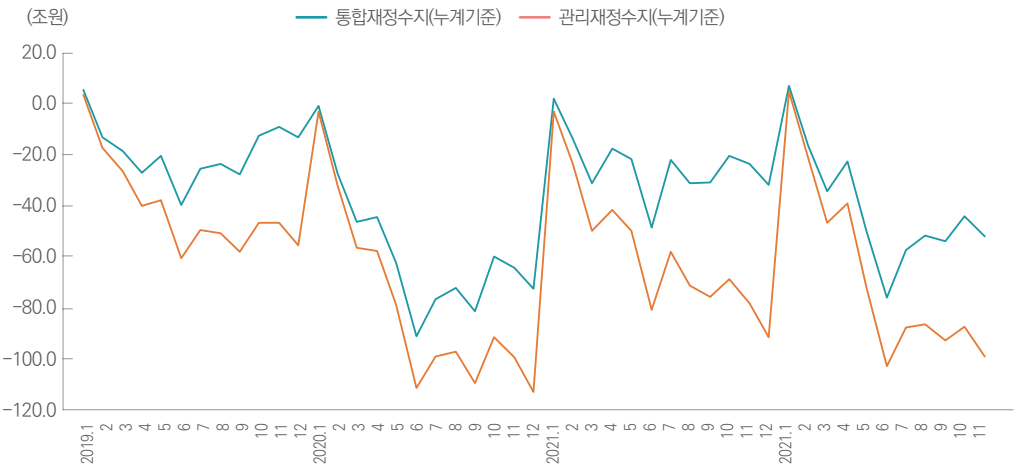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재정수지

2022년 1~11월 누계기준 통합재정수지는 50.8조원 적자

- 통합재정수지의 전년동기 대비 적자폭은 28.5조원 확대
- 2022년 1~11월 누계기준 관리재정수지는 98.0조원 적자로 전년동기 대비 적자폭은 21.0조원 확대

[그림 25] 월별 누계기준 재정수지 추이(2020.1~2022.11)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해외경제 동향

미국 경제는 경기 둔화 우려에도 물가상승세가 둔화되고 노동시장은 견조한 상황 지속

- 전산업생산(전월대비, %): ('22.10월)0.0 → (11월)-0.6 → (12월)-0.7
- 소비자물가지수(전년대비, %): ('22.10월)7.7 → (11월)7.1 → (12월)6.5
- 비농가취업자수(전월대비, 만명): ('22.11월)29.0 → (12월)26.0 → ('23.1월)51.7

중국경제는 주요 실물지표의 회복세가 둔화되는 모습

- 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2.10월)5.0 → (11월)2.2 → (12월)1.3
- 소매판매(전년동월대비, %): ('22.10월)-0.5 → (11월)-5.9 → (12월)-1.8
- 종합PMI: ('22.11월)47.1 → (12월)42.6 → ('23.1월)52.9

유로지역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높은 물가가 지속되면서 경기회복세 둔화

- 산업생산(전월대비, %): ('22.9월)0.8 → (10월)-1.9 → (11월)1.0
- 종합PMI: ('22.11월)47.8 → (12월)49.3 → ('23.1월)50.3
- 소매판매(전월대비, %): ('22.10월)-1.5 → (11월)1.2 → (12월)-2.7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2.10월)10.1 → (12월)9.2 → ('23.1월)8.5

일본경제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생산과 소비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

- 광공업 생산(전월대비, %): ('22.10월)-3.2 → (11월)0.2 → (12월)-0.1
- 소매판매(전월대비, %): ('22.10월)0.3 → (11월)-1.3 → (12월)1.1
- 종합 PMI: ('22.10월)51.8 → (11월)48.9 → (12월)49.7 → ('23.1월)50.7

1 미국

미국 경제는 성장세의 약화 가운데 물가상승세가 둔화되고 노동시장은 견조한 상황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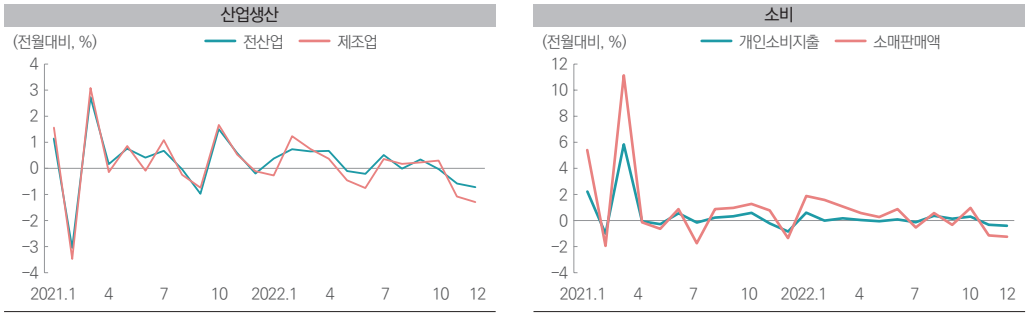
■ **12월 중 「전산업생산」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월에 이어 감소하였고, 선행지표인 ISM제조업지수는 1월 중 47.4로 7개월 연속 하락**

- 전산업생산(전월대비, %): ('22.10월)0.0 → (11월)-0.6 → (12월)-0.7
- 제조업생산(전월대비, %): ('22.10월)0.3 → (11월)-1.0 → (12월)-1.1
- ISM제조업 PMI(기준치 50): ('22.11월)49.0 → (12월)48.4 → ('23.1월)47.4

■ **12월 중 소비지표인 「실질개인소비지출」과 「소매판매액」은 전월에 이어 감소세가 유지되었지만, 「소비자신뢰지수」는 물가상승률 둔화와 양호한 고용여건 지속 등으로 12월 중 반등하였고 1월에는 소폭 하락**

- 실질개인소비지출(전월대비, %): ('22.10월)0.4 → (11월)-0.2 → (12월)-0.3
- 소매판매액(전월대비, %): ('22.10월)1.1 → (11월)-1.0 → (12월)-1.1
- 소비자신뢰지수(컨퍼런스보드): ('22.11월)100.2 → (12월)108.3 → ('23.1월)107.1

[그림 1] 미국의 월별 산업생산 및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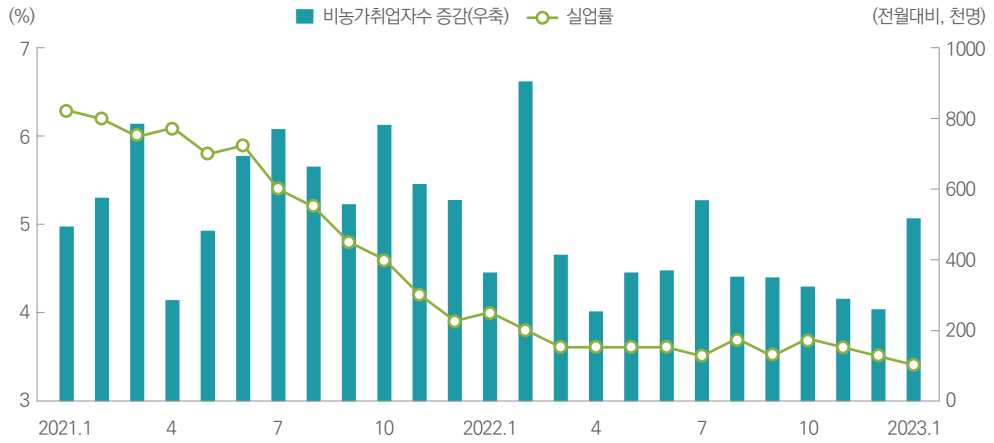


자료: FRB St. Louis 데이터베이스

■ **1월 중 노동시장은 고용증가폭이 확대되고 실업률은 하락**

- 1월 중 비농가취업자수는 전월대비 51.7만 명 증가하여 전월보다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고, 실업률은 3.4%로 4개월 연속 하락
- 비농가취업자수(전월대비, 만명): ('22.11월)29.0 → (12월)26.0 → ('23.1월)51.7
- 실업률(%): ('22.11월)3.6 → (12월)3.5 → ('23.1월)3.4

[그림 2] 미국의 비농가취업자수 증감 및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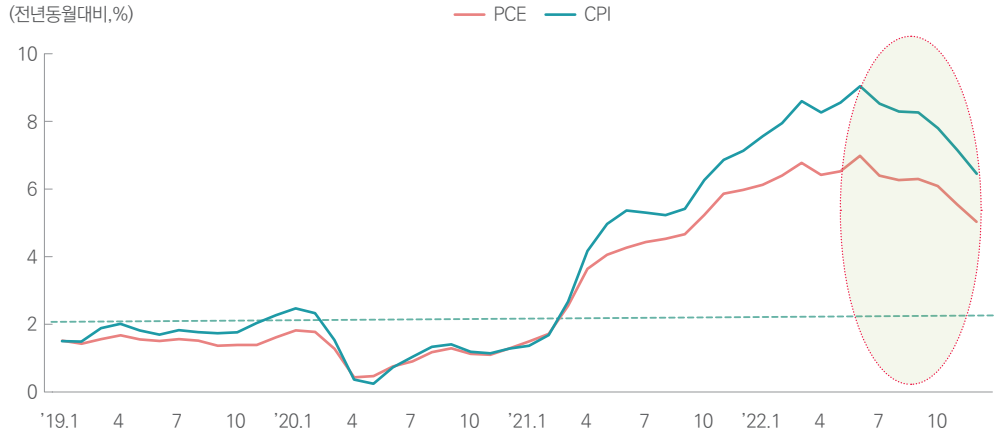


자료: 미 노동통계국(BLS)

■ **12월 중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6.5% 상승하며 전월에 이어 오름세가 둔화되었고, 1월 중 기대인플레이션도 3.9%로 하락**

- PCE물가지수(전년대비, %): ('22.10월)6.1 → (11월)5.5 → (12월)5.0
- 소비자물가지수(전년대비, %): ('22.10월)7.7 → (11월)7.1 → (12월)6.5
- 기대인플레이션(미시건대 서베이 기준, %):('22.11월)4.9 → (12월)4.4 → ('23.1월)3.9

[그림 3] 미국의 개인소비지출(PCE)물가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주: PCE(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물가지수는 개인이 미국에서 소비한 모든 품목의 평균 가격 수준을 나타내며, 소비자물가지수에 비해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의료비와 주거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자료: FRB St. Louis 데이터베이스

■ **1월 중 시장금리는 인플레이션 둔화와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장기금리와 단기금리 모두 전월에 이어 소폭 하락한 가운데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

- 장기금리(10년물기준)와 단기금리(2년물기준)는 월평균 각각 3.53%와 4.21%로 전월대비 소폭 하락하였고,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를 상회하는 역전 현상은 지난 7월부터 7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음
- 장기금리(10년물, 월평균, %);('22.11월)3.89 → (12월)3.62 → ('23.1월)3.53
- 단기금리(2년물, 월평균, %): ('22.11월)4.50 → (12월)4.29 → ('23.1월)4.21
- 기간금리차(국채10년물–2년물, %p): ('22.11월)-0.61 → (12월)-0.67 → ('23.1월)-0.68

■ **미연준은 2월 FOMC 회의(1.31~2.1일)에서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0.25%p(4.25~4.50% → 4.50~4.75%) 인상**

- 정책금리는 지난 6월, 7월, 9월, 11월 회의에서 4회 연속 0.75%p 인상되었으나, 금번 회의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다소 완화되었다고 평가하고 금리 인상폭 축소
-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시작되었지만,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

2 중국

중국경제는 주요 실물지표의 회복세가 둔화되는 모습

■ **12월 중국의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3% 증가**

- 산업별로는 광업(4.9%), 제조업(0.2%), 전기·가스·수도업(7.0%)에서 모두 증가
- 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2.10월)5.0 → (11월)2.2 → (12월)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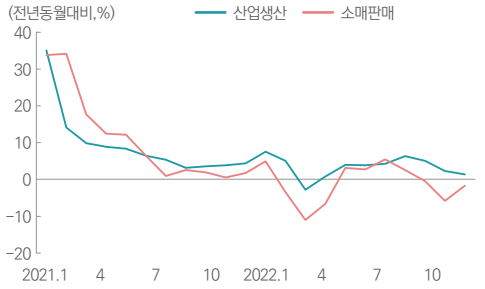
■ **12월 중국의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1.8% 감소**

- 소비유형별로는 상품(-0.1%)과 외식업(-14.1%)에서 모두 감소
- 소매판매(전년동월대비, %): ('22.10월)-0.5 → (11월)-5.9 → (12월)-1.8

■ **12월 중국의 「고정자산투자」는 전년동월대비 5.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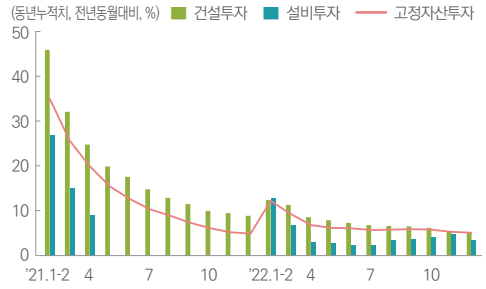
- 투자부문별로는 건설투자(5.2%)와 설비투자(3.5%)가 모두 증가
- 고정자산투자(동년누적치, 전년동월대비, %): ('22.10월)5.8 → (11월)5.3 → (12월)5.1

[그림 4] 중국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 추이



자료: CEIC

[그림 5] 중국 고정자산투자 추이



자료: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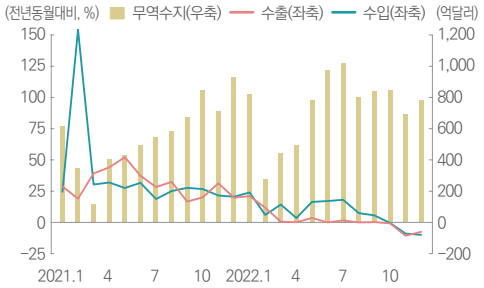
■ **12월 중국의 「무역수지」는 780.1억 달러 흑자를 기록**

- 수출과 수입은 각각 전년동월대비 9.9%, 7.5% 감소
- 무역수지(억달러): ('22.10월)849.4 → (11월)690.6 → (12월)780.1
- 수출(전년동월대비, %): ('22.10월)-0.3 → (11월)-9.0 → (12월)-9.9
- 수입(전년동월대비, %): ('22.10월)-0.7 → (11월)-10.6 → (12월)-7.5

■ **12월 중국의 「도시조사실업률」은 5.5%로 집계되었으며, 12월 중국의 「도시지역 신규취업자수(누적치)」는 1,206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0%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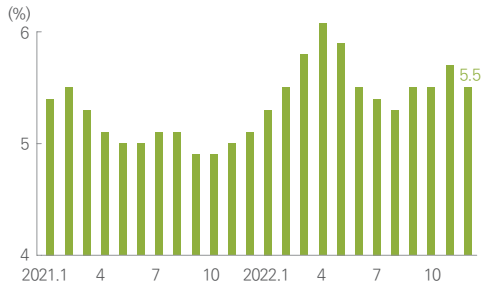
- 실업률(%): ('22.10월)5.5 → (11월)5.7 → (12월)5.5
- 도시지역 신규취업자수(누적치, 만명): ('22.10월)1,079 → (11월)1,145 → (12월)1,206

[그림 6] 중국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자료: CEIC

[그림 7] 중국 실업률 추이



자료: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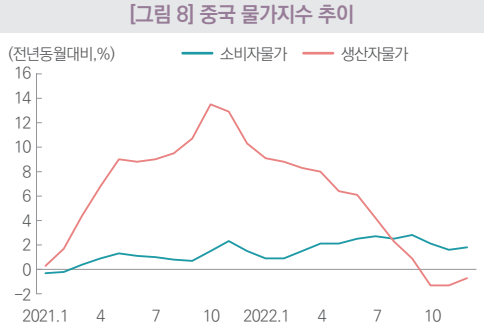
■ **12월 중국의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8% 상승**

- 식료품 물가(4.8%)의 높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식료품 외 물가(1.1%)의 상승폭은 축소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2.10월)2.1 → (11월)1.6 → (12월)1.8

■ **1월 중국의 「종합PMI(구매관리자지수)」는 52.9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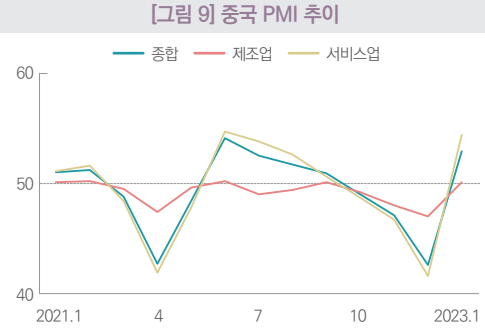
- 종합PMI는 기준선(50.0)을 상회하면서 전월보다 10.3p 상승
- 2023년 1월 중국의 제조업PMI와 서비스업PMI는 각각 50.1, 54.4를 기록
- 종합PMI: ('22.11월)47.1 → (12월)42.6 → ('23.1월)52.9

[그림 8] 중국 물가지수 추이



자료: CEIC

[그림 9] 중국 PMI 추이



자료: CEIC

3 유로지역

➤ 유로지역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높은 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회복세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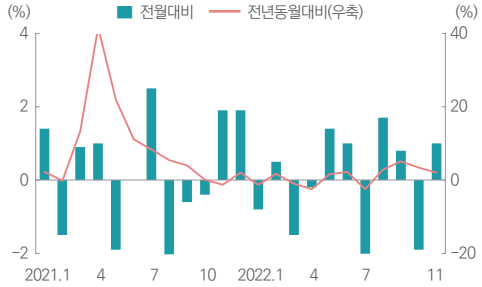
■ 11월 유로지역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1.0% 증가

- 자본재(1.0%), 중간재(0.8%), 내구소비재(0.4%) 등 생산이 증가하였으나 에너지(-0.9%)와 비내구소비재(-1.3%) 등 생산이 감소
- 유로지역 산업생산(전월대비, %): ('22.9월)0.8 → (10월)-1.9 → (11월)1.0

■ 1월 유로지역 「종합PMI」는 50.3으로, 2022년 7월 이후 처음으로 50선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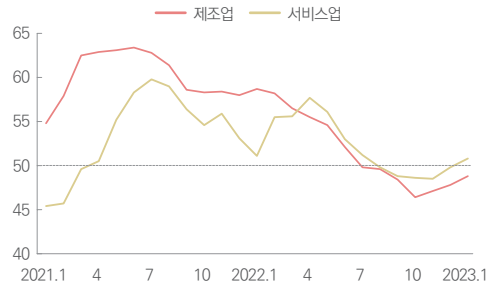
- 제조업 PMI는 48.8로 기준선 하회하고 있으나 4개월 연속 상승 추이
- 서비스업 PMI는 50.7로 지난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
- 유로지역 종합PMI: ('22.11월)47.8 → (12월)49.3 → ('23.1월)50.3
- 유로지역 제조업PMI: ('22.11월)47.1 → (12월)47.8 → ('23.1월)48.8
- 유로지역 서비스업PMI: ('22.11월)48.5 → (12월)49.8 → ('23.1월)50.8

[그림 10] 유로지역 산업생산 추이



주: 건설업 제외
자료: Bloomberg

[그림 11] 유로지역 PM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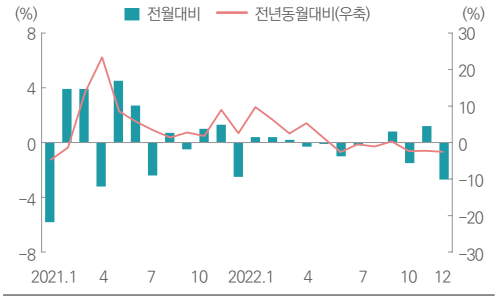
주: 50 이상이면 경기확장, 50 미만이면 경기수축을 의미
자료: Bloomberg

■ 12월 유로지역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2.7% 감소

- 소매판매는 식품, 음료 및 담배(-2.9%)와 비식품(-2.6%)에서 모두 감소
- 주요국 가운데 독일이 -6.6%로 하락폭이 컸으며, 프랑스(-1.0%)에서도 감소
- 유로지역 소매판매(전월대비, %): ('22.10월)-1.5 → (11월)1.2 → (12월)-2.7

■ 1월 유로지역 「소비자신뢰지수」는 2022년 9월(-28.7) 이후 반등하여 -20.9를 기록

[그림 12] 유로지역 소매판매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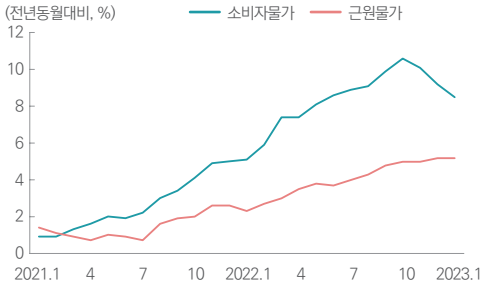
[그림 13] 유로지역 소비자신뢰지수 추이

주: 장기평균치보다 낮으면 경제상황과 전망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소비자가 많다는 의미
자료: Bloomberg

■ 1월 유로지역 「소비자물가」는 8.5%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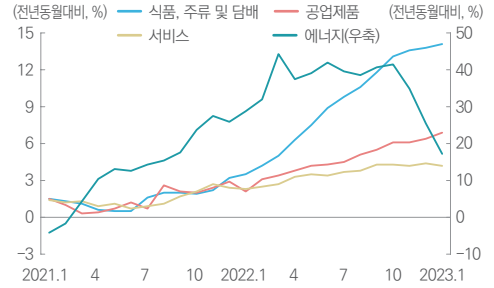
- 에너지(17.2%)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나 음식료품(14.1%) 등의 상승 지속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2.11월)10.1 → (12월)9.2 → ('23.1월)8.5
- 근원물가(전년동월대비, %): ('22.11월)5.0 → (12월)5.2 → ('23.1월)5.2

[그림 14] 유로지역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15] 유로지역 품목별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Bloomberg

■ 12월 유로지역의 「실업률」은 6.6%를 기록

- 실업률은 2021년 7월(8.6%) 정점을 기록한 후 개선세 지속
- 청년실업률은 전월과 같은 14.8%를 기록

4 일본

일본경제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생산과 소비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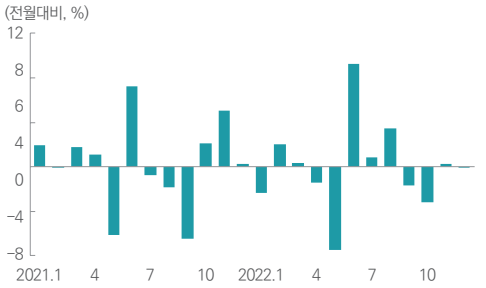
■ 12월 일본의 「광공업 생산」은 전월대비 0.1% 하락

- 광공업 생산은 일반 기계와 금속제품 등의 생산이 감소하며 소폭 하락으로 전환
- 광공업 생산(전월대비, %): ('22.10월)-3.2 → (11월)0.2 → (12월)-0.1

■ 1월 일본의 「종합PMI(구매관리자지수)」는 50.7을 기록하며 확장국면으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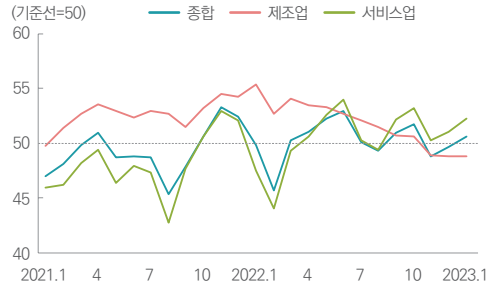
-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라 일본 제조업에 대한 수요가 부진하여 제조업PMI는 3개월 연속 위축 국면을 이어감
- 종합PMI: ('22.10월)51.8 → (11월)48.9 → (12월)49.7 → ('23.1월)50.7
- 제조업PMI: ('22.10월)50.7 → (11월)49.0 → (12월)48.9 → ('23.1월)48.9
- 서비스PMI: ('22.10월)53.2 → (11월)50.3 → (12월)51.1 → ('23.1월)52.3

[그림 16] 일본 광공업생산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17] 일본 PMI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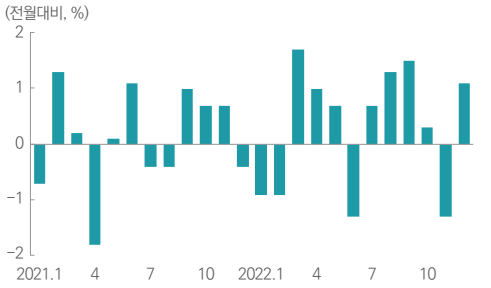
■ 12월 일본의 「소매판매액」은 전월대비 1.1% 증가

- 소매판매는 일본 정부의 관광수요 환기책인 '전국여행지원' 정책으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회복
- 소매판매(전월대비, %): ('22.10월)0.3 → (11월)-1.3 → (12월)1.1

■ 12월 일본의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4.0%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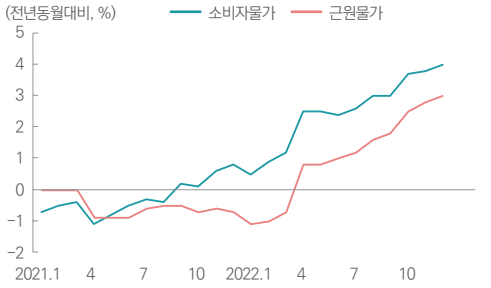
- 엔저와 국제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1981년 12월(4.0%) 이후 41년만에 4%대 기록
- 소비자물가(신선식품 제외, 전년동월대비, %): ('22.10월)3.7 → (11월)3.8 → (12월)4.0
- 근원물가(신선식품·에너지 제외, 전년동월대비, %): ('22.10월)2.5 → (11월)2.8 → (12월)3.0

[그림 18] 일본 소매판매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19] 일본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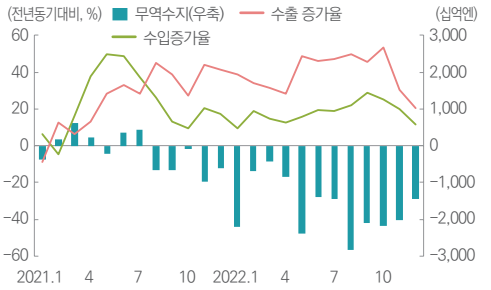
■ **12월 일본의 「무역수지」는 1조 4,520억엔 적자를 기록**

- 2022년 연간 무역수지는 19조 9,713억엔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
- 무역수지(십억엔): ('22.10월)-2,175 → (11월)-2,033 → (12월)-1,452
- 수출과 수입은 각각 전년동월대비 11.5%와 20.7% 증가
- 수출(전년동월대비, %): ('22.10월)25.3 → (11월)20.0 → (12월)11.5
- 수입(전년동월대비, %): ('22.10월)53.7 → (11월)30.3 → (12월)20.7

■ **1월말 일본의 「엔/달러 환율」은 130.1엔을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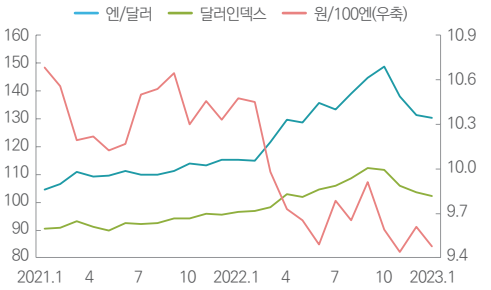
- 미 연준의 금리인상 기대가 약화되며 엔/달러 환율은 2022년 10월 정점으로 하락세를 시현
- 엔/달러 환율(월말): ('22.10월)148.7 → (11월)138.1 → (12월)131.1 → ('23.1월)130.1

[그림 20] 일본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21] 일본 엔화 환율 추이



주: 월말 기준
자료: Bloomberg

V

경제 현안

2022년 수출입 특징 및 평가

경제분석국 산업자원분석과 | **김용균** 분석관(02-6788-4791)

1 분석 배경

2022년 우리 경제는 수입 증가세가 수출 증가세를 상회하며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 **수출은 전년대비 6.1% 증가한 6,839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수입은 전년대비 18.9% 증가한 7,312억 달러를 기록**
  - 2022년 무역액[1]은 전년대비 12.4% 증가한 1조 4,151억 달러로 세계 무역순위는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에 이은 6위를 기록
- **무역수지는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알루미늄, 구리, 반도체, 철강 등 원부자재의 수입액도 증가하며 472억 달러 적자를 기록**
  - 2022년 에너지 수입은 전년대비 784억 달러 증가

세계 경제의 복합적인 하방압력 영향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률 둔화 우려 증가

- **2022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2021년 대비 크게 둔화되었으며, 주요 국제기구들은 이러한 추세가 2024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2]**
  - IMF(2023.1.): ('21)6.2% → ('22^{e})3.4% → ('23^{f})2.9% → ('24^{f})3.1%[3]
  - World Bank(2023.1.): ('21)5.9% → ('22^{e})2.9% → ('23^{f})1.7% → ('24^{f})2.7%
  - OECD(2022.11.): ('21)5.9% → ('22^{e})3.1% → ('23^{f})2.2% → ('24^{f})2.7%

2022년 수출입 결산을 통해 향후 우리 경제의 수출입 여건을 조망하고 해결방안 모색

- **세계 경제의 변동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하방압력도 지속되고 있어, 2022년의 수출입 상황을 검토하여 우리 경제가 당면한 과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

1) 수출액과 수입액을 더한 금액으로 교역액이라고도 함
2) 국제기구별로 통계 집계 대상국 범위에 차이가 있어 발표하는 세계성장률 수치가 상이할 수 있음
3) e는 잠정치, f는 전망치를 의미

2 2022년 우리 경제 수출입의 특징

가. 상반기의 수출 호조세

2022년 상반기 수출액은 반기 최고실적을 달성

■ **2022년 상반기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5.6% 증가한 3,505.3억 달러[4]를 기록하며 강한 수출 호조세를 보임**

- 2022년 3월과 2022년 5월은 각각 역대 월별 수출액 1위와 2위 실적을 기록
- 상반기 중 매월 해당 달의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하며 상반기 월평균 수출액 584억 달러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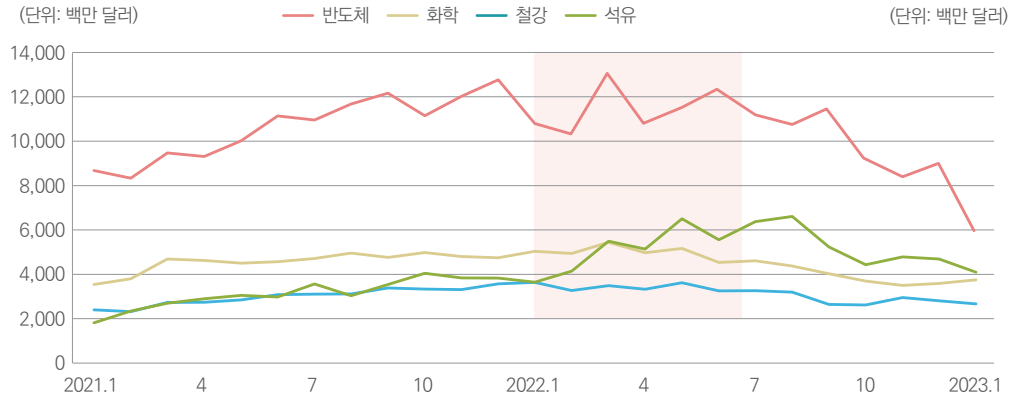
■ **11대 주요 수출품목 중 조선[5]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4개 품목은 역대 상반기 1위의 수출액 실적을 기록**

- 반도체, 화학, 철강, 석유 등의 사업은 역대 상반기 1위의 수출액 실적을 기록

■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었음에도, 반도체 수요 호조와 에너지·원자재의 높은 가격으로 인한 수출단가 상승으로 수출은 호조세를 기록**

- 시스템반도체, OLED, 전기차 등 고부가가치상품 부문 또한 높은 수출 증가세를 보이며 수출 호조세에 기여

[그림 1] 산업별 수출액 추이



자료: 무역협회

4) 기존 반기 최고 실적을 달성하였던 2021년 하반기의 3,413억 달러를 90억 달러 이상 상회

5) 조선 산업의 경우 수주와 건조, 인도에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인도시점에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수출실적 비교 시 주의가 필요함

무역수지 적자에도 불구 수출 호조세로 대외무역 강건성은 유지

■ **수입액 증가로 인하여 2022년 상반기 무역수지는 10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수출액은 반기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달성**

- 2022년 상반기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5.6% 증가하며 수출의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수입액은 전년동기대비 26.2% 증가한 3,606억 달러를 기록하며 이를 상회
- 에너지, 원자재 가격의 급등이 수입액의 급격한 증가의 주요 원인

■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무역수지 악화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수출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

- 일본은 2022년 11월까지의 누계 무역적자는 약 1,432억 달러를 기록
- 독일은 2022년 10월까지 약 494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였지만 그 규모가 전년대비 64.6% 감소
- 이탈리아는 2022년 10월까지 318억 유로의 무역적자 기록

나. 경기하방압력 지속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

불확실성 및 경기하방압력의 지속으로 인한 세계경기 둔화 조짐 가시화

■ **2022년 2월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발발 후 1년이 지나도록 상황이 진정되지 않고 있음**

- 우크라이나 전쟁은 에너지가격, 공급망 교란을 발생시킴으로써 세계경기의 지속적인 하방압력으로 작용

■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이에 대응한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며 세계경기의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음**

- 인플레이션의 장기화는 소비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팬데믹의 영향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세계경기 또한 급격히 둔화
-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응한 금리 인상은 이러한 소비심리 위축을 악화시킴과 동시에 금융비용 상승을 유발시키며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팬데믹으로 인한 중국의 시장봉쇄조치는 세계경기에 대한 하방압력으로 작용**

- 중국의 시장봉쇄조치는 중국시장의 수요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시킴
- 팬데믹으로 인한 중국 경제 성장세의 둔화는 세계경제 전체에 대한 하방압력으로 작용

세계경기 둔화 우려 속에 우리 경제의 수출 성장세도 둔화 움직임

■ **불확실성 및 경기하방압력이 지속되면서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며, 우리경제의 수출도 영향을 받고 있음**

- 2022년 상반기 107억 달러였던 무역수지 적자는 하반기 367억 달러로 그 폭 확대
- 수출호조세를 주도하던 반도체 부문에 대한 세계수요의 급격한 둔화와 제품가격 하락세 지속으로 수출도 급격하게 하락하는 추세
- 세계경기의 둔화세가 반영되어 석유, 철강 등 중간재 수출 또한 감소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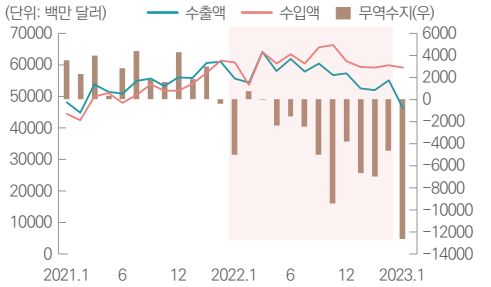
높은 에너지 및 원부자재 가격으로 인한 무역수지 악화

■ **원유, 가스, 석탄 모두 2021년 대비하여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며 무역적자에 크게 영향을 미침**

- 3대 에너지의 수입액은 전체 수입액의 26.1%인 1,908억 달러를 기록
- 동절기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한 에너지 조기확보에 따른 수입액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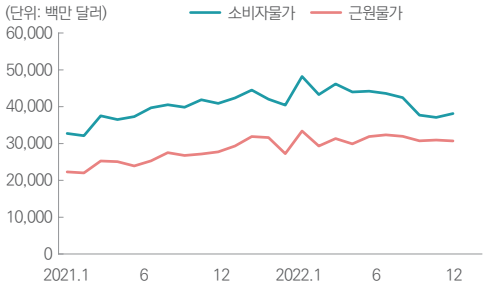
■ **재화 생산에 필요한 알루미늄, 구리, 반도체, 철강과 같은 원부자재는 물론 의류, 쇠고기 등 소비재 수입액도 전년에 대비하여 고르게 증가**

[그림 2] 수출입액 및 무역수지 추이



자료: 무역협회

[그림 3] 중간재 수출, 수입액 추이



자료: 무역협회

다. 대외경제여건의 변화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무역안보의 중요성 대두

■ **정치, 외교적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써 경제보복 조치들이 현실화되며 코로나19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심화**

■ **올해에도 대중국 무역규제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CRMA)」 등을 통해 주요국들의 대중국 무역 규제 기조가 정책적으로 반영
- 한국의 산업은 대중국 무역 규제 조치로 인한 영향에 노출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게 있어 공급망 안정화 및 다변화가 당면한 과제

■ **우리 경제는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데, 특히 중간재 무역의 비중이 높음**

- 2022년 우리나라의 총 무역액 중 중간재 무역(수출 및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62.1%

■ **중국으로부터의 주요 원자재 및 중간재의 수입의존도가 특히 높음**

- 2022년 우리나라 무역액 중 대중국 무역액 비중은 21.9%로 무역대상국 중 가장 높음
- 2022년 우리경제의 중간재 수출과 수입 중 대중국 비중은 각각 25.7% 와 28.1%로 매우 높은 수준

3 종합평가

상반기 중 유지되던 우리 경제의 대외무역 강건성이 하반기 이후 흔들리는 모습

- **2022년 상반기까지는 대외무역의 강건성이 유지되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공급망이 안정화되면 향후 무역수지 개선도 기대되었던 상황**

-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및 경기하방압력의 장기화로 인한 세계경기 둔화의 조짐이 보이면서 우리 경제의 수출 증가세도 둔화**
  - 수출 둔화세가 큰 폭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수입 증가세는 이어지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 우리 경제의 수출호조세를 이끌던 주요 산업의 수출 증가세가 꺾이면서 향후 수출실적의 방향성이 불확실해짐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는 세계 무역시장 기조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

- **세계경기의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및 무역안보가 중요한 의제로 대두되고 있음**
  - 팬데믹 이후 세계 무역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

-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세계 무역시장의 기조 변화 속에서 무역경로, 공급망의 다변화를 통한 안정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
  - 우리 경제는 높은 무역의존도에 따른 경제의 안정성과 수출입 대상국 다변화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 등 정책적 방향성 모색 등 당면 과제에 직면해 있음

nabo Economic Trends

경제동향

2023년 2월호 통권 제35호

발행일 2023년 2월 20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편 집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02-2070-3114)

제 작 ㈜디자인여백플러스 02-2672-1535

© 국회예산정책처, 2023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498-001980-07
ISSN	2950-922X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